Weekly
공감

2009 05.20 No.12(통권 113호)
http://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자원외교' 새 지평 연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장애 딛고 '희망' 남긴 故 장영희 교수의 삶

르포 또 하나의 국경지킴이, 인천세관 감시관실 대원들
"마약·총기 밀수? 꼼짝마!"



행복을 나누는 바이러스 기부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1989-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09. 6. 1 ~ 2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www.asean-roksummit2009.kr | blog.naver.com/asean_korea

"경제는 세계 10위권 기부는 50위 넘어"

이윤구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우리는 빈곤, 질병, 무지의 최저개발국 대열에서 기적 같은 한강의 경제혁명으로 20세기 후반에 세계경제 10위권 대열로 비상(飛上)했다. 세계도 놀라고, 우리도 아직 환상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데 5천만 가까운 국민이 손잡고 함께 공생(共生)문화의 나라로 가는 길은 너무도 멀어 보인다. 기부문화라는 잣대로 우리나라를 측정하면, 2백여 국가 가운데 50위 밖으로 떨어진다. 부끄럽고, 안타깝고, 답답하다. 국민의식에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기부문화는 성숙한 시장경제와 균형 잡힌 부의 사회 환원이 꽃피는 문명국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경제성장을 최단시일에 이룩했듯이 복지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기부문화도 시급하게 전 국민에게 확산돼야 한다. 그 길이 새로 뚫려야 하고, 거국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우선 모든 국민이 땀 흘려 얻은 총수입의 1퍼센트에서 많게는 10퍼센트까지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와 국가에 자진 환원하는 문화가 시작돼야 한다. 지역사회, 국가사회, 민족사회(북한), 인류사회를 위해 할 일을 찾으면 태산같이 많다. 그중에서도 기부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감은 비할 곳이 없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기쁨이 있다.

기부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제일 돋보이는 현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사회 환원이다. 미국의 빌 게이츠가 모범 모형이라면 록펠러, 카네기 가문은 미국을 위대한 사회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도 세상에 내놓아 손색이 없는 큰 별이 있다. 유한양행 창립자 고(故) 유일한(1891~1971) 박사는 21세기의 한국과 한민족이 새로 배우고 큰 교훈을 받을 스승이다. 기부문화의 살아 있는 영원한 거울이다.

땀과 눈물과 고난으로 캄캄했던 시절에 태평양을 건너가 신문배달로 고학을 하고 제너럴일렉트릭(GE)에 입사해 기업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1926년 50만 달러의 큰 자본을 들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유한양행을 일궜다. 구충제, 결핵약, 항생제 등을 만들어 기업과 나라를 동시에 살리고 키웠다.



그중 무엇보다도 귀한 업적은 생명을 걸고 키워놓은 유한양행의 모든 것을 사회에 내놓은 것이다. "기업이 얻은 이득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실천했다.

우리나라가 기부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멀다. 전 국민이 소득의 1퍼센트를, 모든 기업이 영업이익의 1~10퍼센트를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부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G

Contents

Weekly_2009. 05. 20_No.12(통권 113호)



기부는 미처 정부의 복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수혜자에게는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기부자에게는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되돌려준다.
기부는 전염성이 강해 한 사람의 작은 기부가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14



08



40

Weekly 공감

발행일 2009.5.2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배포문의** 02-3704-9668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 〈Weekly 공감〉 11호(5월 13일자)에 실린 '개그우먼 김지선의 출산장려 편지'를 읽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찬성과 비판의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판글들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현재의 정부 출산지원책을 믿고 출산을 결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아직 많다, 그리고 김지선 씨처럼 소득 높은 연예인은 다산이 가능하지만 서민들은 생활고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미흡한 점을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거나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김지선 씨보다 소득이 많은 연예인이나 고소득층도 자녀를 낳지 않거나 한두 자녀만 낳는 경우가 많으니 다산은 김 씨 부부의 결단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처지에서 보면 말 그대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죠. 저도 돈이 있거나 사회제도만 잘되어 있어도 '최소한' 3명은 낳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두 명 이상은 생각하기 어렵죠. 아이를 기르는 데 드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부담하나요? 심지어 임신하면 직장조차 지키기도 힘든데…. 말 그대로 한국은 많은 자녀 키우기가 힘든 사회입니다." _ t리

"출산 장려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 아이를 못 낳는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만 글쎄요, 근본적인 대책이 과연 나올까요? 그보다는 개개인의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도 낳지 않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낳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젊어서 여럿 낳아 기를 때는 고달프지만 노년에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하나만 낳아 잘 기르는 게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자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이 하나하나가 이 사회의 일꾼이니까요. 실업자가 많다고 하지만 그게 반론의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 시점에서 부양인구가 없다면 그것도 큰 문제지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이민 오거나 시집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우리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은 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그 문제는 아주 천천히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큰 문제를 힘을 합쳐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_ 이재흠

"저는 아이 둘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한 달에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소득별로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저희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저희가 따로 살다가 시부모님과 합치면서 시부모님의 재산도 저희 재산에 포함되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외가, 그러니까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가족은 혜택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 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따로 나가 사는 것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후자의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둘째, 부모님과 같이 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이라면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_ 속도


"더 낳으세요" 선진국도 올인했다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속도' 님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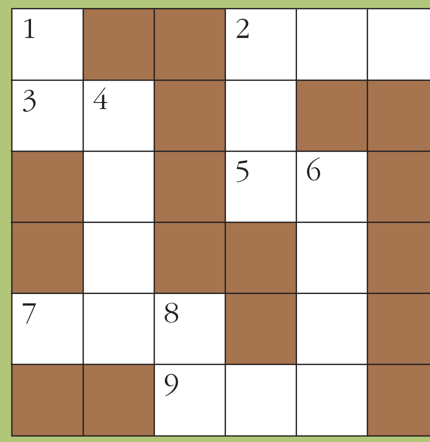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보건복지가족부 박선옥 사무관입니다. 올해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계획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도 개선했습니다.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4인 가구와 5인 가구의 기준 소득금액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구원에는 영·유아와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동거하는 조부모(외조부모)가 포함됩니다. 외조부모가 제외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동안 누구든 가구원에 속하게 될 경우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가구소득에 합산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있는 가구는 가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소득은 높아지지만, 조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기준소득을 초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서는 가구원에서 조부모를 제외합니다. 그동안 동거하는 조부모의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개정된 선정기준에 따라 조부모를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소득을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공감 퍼즐



정답을 적어 주소 · 연락처와 함께 5월 28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서 몇 분을 뽑아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로

2. "왼손이 하는 일을 OOO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3. 빨리 적기. "그는 대변인의 말을 수첩에 OO했다." OO사.

5. 형제자매의 자식을 이르는 말. "OO 생각하는 것만큼 아재비(숙부) 생각도 한다."

7. 사회 또는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돕는 사람. "충남 태안 일대에는 서해안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자원OOO가 몰렸다."

9. 물품이나 사람의 이름 등을 적어놓은 명단이나 목록을 영어로 발음하면 OOO. 이 이름을 가진 헝가리 출신의 피아노 연주자이자 작곡가도 있죠.

세로

1. 다른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는 것. "OO을 잘 지켜야 신뢰를 받는다."

2. 딱따구리목(目)에 속하는, 깃이 다섯 가지 색(풀색·붉은색·누런색·검은색·푸른색)을 띠는 새.

4.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 장학사업 등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품 등을 내놓는 사람을 천상의 날개 달린 존재에 비유하여 일컫는 말. 기업인, 연예인 등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어렵게 모은 돈을 쾌척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이 호칭을 붙여드립니다. "OOOO인 그가 이번에는 억대 부동산을 보육원에 내놓았다."

6. 한의학계 원로 류근철 박사가 국내 개인 기부 사상 가장 많은 5백억원이 넘는 사재를 최근 이 대학에 내놓았습니다. 류 박사는 "일반 대학과 달리 OOOO는 국가가 운영하는 데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과학도를 키워내는 곳이잖아요. 저는 기부를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을 위해 '투자'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일OO를 찾았다." "오늘따라 너의 빈OO가 더욱 커 보인다."

〈Weekly 공감〉 10호(5월 6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2 누에 4 청소년 5 스키복 6 청국장 9 가정의달
세로 1 탄소발자국 3 에스키모 6 청약 7 장가 8 페달

당첨자
강도현(울산시 남구 신정4동) 권순남(서울시 노원구 상계8동)
김재현(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이미라(충남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임선영(대전시 서구 변동)



빨래를 널었습니다
희망도 함께 널었습니다

파란 하늘에 색색 고운 빨래가 나부낍니다.
시원한 바람에 빨래가 나부낍니다.
아파트 삶에 익숙해지기 전만 해도
빨랫줄에 널린 빨래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햇볕 좋은 날이면, 어머니들은 버릇처럼
빨래를 널곤 했으니까요.
간밤 꿈에 아이가 지려놓은 오줌도
오랜 노동에 얼룩진 땀도, 남몰래 흘렸던 눈물도
깨끗이 헹구어져 햇볕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말라갑니다.
쨍쨍한 5월 햇볕 속에서
우리도 빨래로 널리고 싶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는 내가 되어
빨래처럼 하늘 아래서 나부끼고 싶습니다.

사진 · 조영철 기자 / 글 · 정지연 기자



김정표의 작품 〈A Secret Garden〉.
청계천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의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展
(5월31일까지)에 선보인 작품 중 하나다.



우즈베키스탄

이명박 대통령이 5월 12일 사마르칸트를 방문해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함께 레기스탄 광장을 시찰하고 있다.

5개 유전·가스전 탐사권 확보

이명박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자원외교 성과 거둬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방문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역내 자원외교를 본격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올해 초 천명한 '신(新)아시아 외교구상'을 구체화하는 실질적인 첫걸음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발표한 이후 에너지·자원 분야의 국제협력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다. 5월 10~14일 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순방한 것은 이를 분명히 입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두 나라와의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에너지·자원 분야의 '실질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역내 자원외교'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두 나라 정상과 친분을 돈독히 한 것도 의미 있는 수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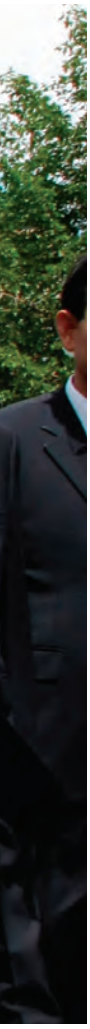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석유,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대표적인 자원부국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멘델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다수 화학 원소를 보유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내 최대 자원국으로 꼽힌다. 정부가 러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와 함께 중앙아시아를 '자원개발 4대 전략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11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서페르가나, 취나바드 지역을 포함한 5개 유전·가스전에 대한 신규 탐사권을 확보했다. 또 수르길 가스전·플랜트사업 금융 양해각서, 침칼타사이 몰리브덴·중석광 탐사 계약, 나망간·추스트 탐사계약 의정서 등 16건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에 서명했다.

본궤도 오른 '자원외교'… 자원+자본·기술로 '윈윈'

13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이 포함된 '양국간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또한 발하슈 석탄화력 발전사업 협력협약서와 함께 잠빌 해상광구 석유탐사사업 및 보셰콜 동광 개발, 광물자원 공동개발 협력 등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는 '이 대통령식 자원외교'의 두 가지 대원칙에서 벗어나


연합



연합

이명박 대통령이 5월 12일 카자흐스탄 대통령
사저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팔짱을 낀 채 산책하고 있다.

지 않는다. 한국의 기술, 경험과 결합했을 때 시너지가 큰 자원부국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정해 철저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윈윈한다는 것. 특히 기술과 자본을 가진 우리나라와 부존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이 '윈윈'이 가능한 보완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순방 동선은 치밀한 '자원외교 맵'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며 "러시아를 시작으로 남미, 오세아니아,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로 이어진 이동경로는 원(圓)에 가까운데, 이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환벨트 자원외교'"라고 소개했다.

두 나라 정상과의 친분을 돈독히 한 것도 이번 순방의 큰 성과 가운데 하나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깜짝 공항 영접'으로 파격 의전을 선보인 데 이어 2박3일 동안 이 대통령의 모든 일정에 동행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2006년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대통령으로부터 명예서울시민증을 받은 일, 지난해 2월 이 대통령 취임식 때 수석 귀빈 자격으로 참석했던 점 등을 거론하며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주요국 몇몇 정상만 체험했던 '대통령 별장 사우나' 기회를 이 대통령에게 제공했다. 카자흐스탄에선 '사우나 비즈니스' '사우나 외교' 등의 신조어가 생길 만큼 사우나가 정상 간 친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3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전날 '사우나 회동'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상 간 신뢰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제 카자흐스탄이 우라늄을 한국에 수출만 할 것이 아니라 리서치 단계에서부터 협력해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제안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정상 간 신뢰가 없으면 현안을 원만히 풀어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에 양국 정상과 쌓은 깊은 신뢰는 실무적인 성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 대통령의 '기업 해외민원 해결사' 역할은 이번 순방에서도 계속됐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마치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경제사절단장' 같은 역할을 했다"며 "정상회담에 앞서 수행 경제인들과 조찬회동을 갖고 기업인들의 요구를 일일이 들은 뒤 회담에서 이를 관철시켰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는 실무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힘든 내용을 정상 간 신뢰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사우나 회동 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자국에 진출한 우리 건설회사(동일하이빌)의 실력을 추어올리자 이 대통령은 "말로만 관심을 가져선 안 된다"는 농담으로 핵심을 전달했다.

한·우즈베키스탄 경제인 오찬에서는 "그동안 투자에 망설였던 (한국) 기업인들은 이제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면서 "여기 카리모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약속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얘기 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좌중에 폭소가 터졌지만 어떤 협정서나 외교적 수사보다 호소력 있는 말이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사우나 회동과 파격 영접… 정상 간 신뢰, 외교 성과로 연결

신아시아 구상에 대한 양국 지지를 이끌어낸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신아시아 구상은 금융위기 이후 다가올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아시아 모든 국가의 번영을 위해 역내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를 "시의적절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이번 순방이 이 대통령이 올 초 천명한 신아시아 구상 실천을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對)아시아 외교지평을 넓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에 이뤄진 회담들과 관련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결과가 갖는 선언적 의미보다 확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자원부국 중앙아시아 땅에 심은 씨앗, 즉 우리의 자본, 기술, 노하우가 창출할 시너지가 자못 기대된다. G

글 ·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동행한 작가 황석영

“보수와 진보 큰 틀에서 함께 가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2개국 방문 일행 중에는 ‘의외의 인물’이 있었다. 소설가 황석영 씨. 진보적인 작가로 널리 알려진 그는 이번 방문 중에 ‘몽골+2코리아 통합론’을 주장했다.

소설가 황석영(66) 씨가 지난 5월 10~14일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를 국빈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한 것이 화제다. 황 씨는 순방 기간 중 몇 차례의 기자간담회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대통령과의 인연, 현 정부에 대한 평가, 진보 진영에 대한 아쉬움 등을 특유의 입담으로 풀어냈다.

그는 자신이 1993~94년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일 때 이 대통령이 두 번 면회를 온 적이 있으며, 문화올림픽(WCO) 창설 멤버로 함께 참여한 인연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일부에선 보수우익으로 규정하지만 (이 대통령은) 스스로 중도실용 정권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중도적 생각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는 봤다. 그런데 취임 후 촛불시위 등으로 자기 정립을 해나갈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그는 ‘황석영이 변절했다는 비판이 진보 진영에서 나온다’는 지적에 “욕 먹을 각오가 돼 있다”면서 “큰 틀에서 (현 정부에) 동참해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나 유럽이나 좌파가 많이 달라졌다”면서 “옛날에는 위에서 파이를 키워 부스러기를 나눠줘 하부구조를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게 보수라면, 진보는 분배와 평등이고 더 내놓으라는 것인데 지금은 전 세계가 비정규직, 청년 실업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생산관계가 바뀌어 고전적 이론 틀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도 비정규직 문제나 외국인 근로자 문제까지는 못 나가고 그저 노동조합 정도에서 멈춰 있다”며 “좌파는 리버럴해야 하는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독재타도나 민주화운동이 억압당했던 관행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라시아 문화교류 앞장선다

황 씨는 ‘몽골+2(남북한) 코리아 통합론’도 설파했다.

“지난 두 정권이 동북아론이라고 해서 한중일 균형자론을 말했지만 진전도 실속도 없었다. 우리 역량을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 싶다.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몽골+2코리아다. 느슨한 연방제의 토대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준비해왔다. 내가 그 얘기를 이 대통령에게 했더니 이 대통령은 ‘그 생각의 지적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하더라.”

그는 “이번 순방을 통해 몽골과 남북한, 중앙아시아의 문화 공동체인 ‘알타이 문화연합’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며 8, 9월쯤 알타이 문화연합을 발족시켜 제주도에서 첫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황 씨는 조만간 ‘유라시아 문화 특임대사’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씨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풀렸으면 좋겠고, 한반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도실용주의 노선이 확실하게 관철되면 다음에 훨씬 더 선진적인 정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현 정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G

글 · 정용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소설가 황석영씨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사마르칸트 역사유적을 바라보고 있다.



파견국 입장에서 봉사해야 ‘World Friends’

해외봉사단 규모 세계 3위

지구촌 이웃들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을 떠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해외봉사단의 통합 브랜딩 작업을 계기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해마다 2천~3천 명의 젊은이들이 제각기 다른 복장과 이름으로 파견되던 해외봉사단이 이젠 같은 유니폼, 같은 이름을 갖게 됐다. 외교통상부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 행정안전부의 인터넷해외봉사단,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 봉사단 등으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해외봉사단이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한국 해외봉사단 월드 프렌즈 코리아는 세계의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친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앞으로 해외봉사단은 단지 명칭만이 아니라 로고와 슬로건, 복장은 물론 광고와 홍보, 교육과정도 통합된 내용으로 공유하게 된다.

지난 5월 7일 청와대 녹지원에서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 해외봉사단 통합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3백여 명의 봉사단원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및 시행기관장, 주한 외교사절단, 그리고 언론계, 학계, 문화계 인사 등 4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된 봉사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방방곡곡 오지에 파견된 봉사단원들을 격려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사명감과 ‘한국 봉사단’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봉사단원들이 착용한 새로운 유니폼도 눈길을 끌었다. 하얀 옷감에 산뜻한 푸른 글씨로 한글 서체의 획이 날염된 유니폼은 한글 서체를 패션에 접목하는 작업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이상봉 씨의 작품이다.

해외봉사단의 단일 브랜드화는 국가 이미지 강화라는 측면 외에도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사업이 가시화됐다는 점에



제각기 다른 이름과 복장으로 파견됐던 해외봉사단이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됐다.





귀국하는 KOICA단원들을 향해 페루 어린이들이 인사하고 있다(왼쪽).
5월 7일 열린 월드 프렌즈 코리아 해외봉사단 발대식.

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낮은 원인을 파악한 바 있다. 첫 번째 원인으로 국제 사회에의 기여가 미흡한 점이 꼽혔다. 둘째는 거주지 혹은 관광지로서의 매력 부족, 셋째는 글로벌 시민의식의 결여,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우리의 수출상품이 중저가 제품으로 인식된다는 점 등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 기여, 첨단 기술·제품, 문화·관광, 다문화·외국인, 글로벌시민의식 등을 5대 역점분야로 내놓았다.

5대 역점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브랜드위원회와 관계부처들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했는데, 해외봉사단 통합 브랜딩, 세계 학생 교류, 따뜻한 다문화사회 만들기, 경제 한류 프로젝트, 세계 학생 교류,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 및 태권도 명품화,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등을 '우선 추진 10대 사업'으로 선정했다.

경제에도 한류… 개도국에 전략적 협력

국가브랜드위원회 기획총괄국 윤정인 사무관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낮았던 것은 국제사회에의 기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가 해외봉사에 적극 나섰음에도 대외적으로는 널리 알려지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우리나라 해외봉사단 규모는 미국 8천79명, 일본 2천5백42명에 이어 2천59명으로 세계 3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앞으로 전문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KOICA 시니어 봉사단원'의 모집이 활성화되고 현직 공무원 참여제도가 도입되면 세계 2위의 해외봉사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 발대식을 계기로, 우선 추진 10대 사업 외 분야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중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소개하는 경제 한류 프로젝트가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경제 한류 프로젝트는 전략적 경제협력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핵심국가로 선정해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우리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13개국 83개 과제에 대해 발전 경험을 전수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본질적 도움을 주는 개발도상국들의 '친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그동안 부서별로 개별적, 분산적으로 이뤄진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을 '한국형 원조사업'으로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부처 간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첫 단계로 올해는 베트남을 핵심국가로 선정했으며, 현재 관계부처들 간에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 협의가 진행 중이다.

윤 사무관은 "이를 계기로 문화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한류 확산' 붐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며 "금년도 베트남과의 성과를 따져본 후 내년에는 아시아 주요국가인 네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4개 국가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하는 '따뜻한 다문화사회 만들기'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G

글 · 정지연 기자

우선 추진 10대 과제

1 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	6 세계 학생 교류
2 해외봉사단 통합 브랜딩	7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
3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8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4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발굴 및 홍보	9 따뜻한 다문화사회 만들기
5 디지털로 소통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10 국가브랜드 지수 개발 운영



'희망 전도사' 故 장영희 서강대 영문과 교수

"당신의 불꽃같은 삶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며 삶의 소중함을 일깨운 고 장영희 교수. 평소 장애라는 불리한 조건을 축복으로 받아들인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장 교수의 삶을 돌아본다.

한 수필가의 죽음에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왜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일까. 5월 9일 57세로 세상을 떠난 장영희 서강대 교수의 이야기다. 장 교수가 신문과 잡지에 오랫동안 글을 써온 필자였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것 같다. 웬만한 종합병원 암 병동의 환자를 위한 서가에 〈내 생애 단 한번〉, 〈문학의 숲을 거닐다〉 같은 그의 책들이 많이 비치돼 있다는 사실이 작은 힌트가 될까.

그는 희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전도사였다. 그의 따스하고 아름다운 문장 덕분에 역경을 딛고 일어설 힘과 위로를 받은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출생


조영철 기자

고 장영희 교수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찾기 위해 실천에 나선 행동가였다.

1년 만에 소아마비를 앓아 두 다리를 제대로 못쓰는 1급 장애인이었고, 세 차례나 암과 싸우는 시련을 겪었다는 점이 비슷한 처지의, 또는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 보통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끝이 안 보이는 항암치료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만, 독자에게 한 내 말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희망을 연구하고 실험하리라.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 연구년이 끝날 무렵에 멋진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면, 난 지금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연구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그가 〈조선일보〉에 보내온 '희망편지' 칼럼에 쓴 마지막 문장이다. 그는 희망의 힘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듯, 희망은 운명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세번째 암 투병에도 '희망' 놓지 않아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한 장 교수는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현승의 시를 번역해서 한국문학번역상을 수상했고, 수필집 '내 생애 단 한번'으로 올해의 문장상을 받았다.

장 교수의 운명을 바꾼 것은 2001년 하버드대 방문교수로 갔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부터다. 당시 〈샘터〉에 연재한 글에서 그는 짐짓 암에 걸리지 않은 것처럼 슬쩍 마무리했다. 그러나 실은 두 차례의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서야 회복했다.

운명은 가혹했다. 2004년 척추로 암이 옮아왔다. 그는 신문에 연재하던 '장영희의 문학의 숲' 칼럼 중단을 알리는 마지막 글을 이렇게 시작했다.

"신은 인간의 계획을 싫어하시는 모양이다. 올 가을 나는 계획이 참 많았다." 이어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고 썼다. 이런 다짐처럼, 그는 오뚝이같이 병마를 이기고 강단에 다시 섰다. 그러나 지난해 암이 간까지 전이되면서 학교를 휴직하고 최근까지 치료를 받아왔다.

그가 '불굴의 전사'였던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세 번째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더 흔들렸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항암제를 처음 맞는 날, 난 무서웠다. '아드레마이신'이라는 정식 이름보다 '빨간 약'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항암제. 환자들이 빨간 색을 보기만 해도 공포를 느끼고, 한번 맞으면 눈물도 소변도, 하다못해 땀까지도 빨갛게 나온다는 독한 약. 온몸에 매캐한 화학물질 냄새와 함께 빨간 약이 내 몸에 퍼져 갈 때, 최루탄을 맞은 듯 눈이 따가웠다."

그는 세 번째 암과 싸우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가 그 무렵 "난 여전히 희망의 위대한 힘을 믿고 누가 뭐래도 희망을 크게 말하며 새 봄을 기다린다"고 글로 썼듯이 삶의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기적"… 삶의 소중함 일깨워

장 교수는 가녀린 외모와 달리,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찾기 위해 실천에 나선 행동가였다. 2001년 하버드대 방문교수 시절, 7층짜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꼭대기 층에 살던 그는 3주 동안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장 교수는 이 아파트를 관리하던 보스턴 굴지의 부동산회사를 상대로 싸워 사과와 함께 보상을 받아냈다. 유력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는 장 교수의 스토리를 머리기사로 소개했고, NBC TV와 지역 방송들도 앞다퉈 보도해 5천4백만 미국 장애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역 사회의 스타로 떠올랐다. 장 교수는 당시 인터뷰에서 "장애인 학생들에게 '스스로 일어서라'고 가르쳐온 내가 적당히 타협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엄마 미안해, 이렇게 엄마를 먼저 떠나게 돼서.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찾아서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딸로 태어나서 지지리 속도 썩였는데 그래도 난 엄마 딸이라서 참 좋았어. 엄마, 엄마는 이 아름다운 세상 더 보고 오래오래 더 기다리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떨구게 한 장 교수의 마지막 편지다. 그는 임종 직전 노트북 컴퓨터로 힘겹게 어머니 이길자(82) 여사에게 편지를 남겼다. 어머니는 두 다리를 못 쓰는 둘째 딸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업어서 등·하교시켰다. 진눈깨비 내리는 날이면 딸을 학교에 못 데려다주게 될까봐 새벽에 일어나 연탄재를 부숴서 집 앞 골목길에 뿌려놓았다.



동아DB

5월 13일 고 장영희 교수의 장례미사에는 많은 이들이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유족들은 장 교수가 무기력과 피로 때문에 네 문장짜리 짧은 글을 완성하는 데 사흘이나 걸렸다고 했다. 그의 몇 줄짜리 짤막한 편지는 수백 쪽짜리 소설보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마음의 빚을 진하게 담았다. 장 교수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버지인 영문학자 장왕록 서울대 명예교수는 1994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장 교수는 임종 직전까지 에세이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마무리하느라 바빴다. 그는 "생각해 보니, 나는 지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적을 원한다. 암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더 크고, 확률에 위배되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이라고 프롤로그에 썼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며 삶의 소중함을 일깨운 그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나온 유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은 이틀 만에 초판 3만 부가 팔려나갔다. 그의 부재(不在)를 아쉬워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일 것이다. G

글 · 김기철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弔辭 | "수고했다, 잘 가라… 영희야, 안녕"

제가 이 자리에 조사를 드리기 위해 서게 되니 만감이 교차하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애절한 슬픔이 가슴을 저며옴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전화를 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목소리는 맑고 고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그날 새벽에도 미사에 참여하여 저의 집사람과 교수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매일 하던 대로 기도를 드렸던 터라 부음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교수님의 그 소녀 같은 앳된 모습과 맑은 웃음, 그 목소리를 다시 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났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문안과 위로의 전화를 드릴 때마다 제가 오히려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고백을 드립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암 투병을 하면서 어떻게 그처럼 환한 미소와 주옥같은 글로 주위를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미소와 글 뒤에 숨겨진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힘든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교수로서 책임시간을 지켜서 강의를 하셨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수로서의 책임감과 제자들을 사랑하는 올바른 스승의 긍지를 지키려고 자신과의 치열한 투쟁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강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언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괜찮다고 대답했지요.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 그때 강하게 말리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교수님을 떠나보내는 이 순간 저는 교수님을 제 여동생처럼 "영희야"라고 다정하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저의 청을 기쁘게 받아주시겠지요.

"영희야, 수고했다. 잘 가거라. 천국에서 아버님도 만나고, 하느님 곁에서 그 환한 미소와 고운 목소리, 멋있는 글과 말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서강을 위해 기도해다오. 우리도 너를 위해 기도해주마. 영희야, 안녕."

※ 이 글은 지난 5월 13일 열린 장례미사 때의 손병두 서강대 총장 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기획특집



행복을 나누는 바이러스
기부

기부는 미처 정부의 복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수혜자에게는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기부자에게는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되돌려준다.
기부는 전염성이 강해 한 사람의 작은 기부가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기부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연예인들과 사회지도층의 기부가 늘고 있으며, 서민들의 일상적인 기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 핏속엔 나눔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부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제 정비 등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청된다.

십시일반이 가져온 커다란 기적

“친구들 도움에 뜨거운 눈물 흘렸어요”

기부는 부나 명예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다.
기부의 크기는 중요치 않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개개인이 베푼 작은 온정이 모이면 캄캄한 절망의 동굴에서 해매는 이들을 구원하는 희망의 빛이 된다.

서울 금호동 현지네 가족

“멋진가수 돼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요”

굽이굽이 골목길을 돌아 한참 올라간 언덕배기의 작은 공터. 고층 아파트촌을 마주한 이곳에는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허름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한쪽 귀퉁이에 놓인 집 앞에서 긴 생머리 소녀와 아주머니가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넨다.

“올라오느라 힘드셨죠? 행여 길을 못 찾을까 싶어 현지와 같이 나와있었어요. 제가 몸이 불편해서 멀리는 못 나가고….”

초등학생 현지(11)와 어머니 안민자 씨는 낯선 취재진을 한눈에 알아봤다. 안 씨가 “20년을 여기서 살아 동네사람과 이방인을 쉽게 구별한다”며 정겹게 웃자 엄마 뒤에 숨어 있던 현지도 고개를 내밀며 해맑게 웃었다. 두 사람 모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다는 표정이다.

언뜻 보기엔 불편함과는 거리가 먼 듯하지만, 안 씨는 중풍 후유증을, 현지는 심장장애를 오래 전부터 앓고 있다. 안 씨는 현지와 언니 현영(18)을 낳고 얼마 후 중풍에 퇴행성관절염까지 겹쳐 한동안 거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 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날이 병세가 악화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어 두 딸을 불편한 몸으로 혼자 키워야 했던 안 씨는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다.

‘이사’ 걱정되지만 두 딸 있어 든든

급기야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병원비도 지원받았지만 살길이 막막하긴 마찬가지였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 시절, 현지네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으로 기아대책에서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때까지는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라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현지처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후원자와 1 대 1로 결연해 지속적인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주민센터를 통해 현지네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거였다. 아이들에게 아빠 역할까지 해야 하는데 몸이 불편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안 씨는 기아대책의 제안이 그저 고맙기만 했다.

“기아대책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9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것 외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겨울엔 연



가난과 지병으로 살길이 막막하던 시절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웃음을 되찾은 현지네 가족.

탄과 김장김치를 가져다주고, 여름방학엔 아이들이 급식을 못하니까 대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크리스마스와 어린이날엔 아이들 선물도 보내주고 그래요."

안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라 정부 지원을 받긴 하지만 너무 쪼들리고 힘들어서 가만 있어도 눈물이 났다"며 "기본 생활과 아이들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정부에도 감사하지만 기아대책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웃고 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발 사실을 알려줬더니 "나,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하고 도리어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부모가 아파할까봐 힘들다고 한번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백혈구 수치가 회복됐죠.

현지네 가족은 어려운 살림임에도 다들 구김살이 없었다. 비결이 뭔가 했더니 어머니 안 씨의 가르침인 듯했다. 원래 활달하고 긍정적인 성격인 안 씨는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어디서든 당당하게 행동하고 자신감을 가져라. 현실을 비관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고 이른단다. 그래서인지 큰딸 현영이나 작은딸 현지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고'를 친 적이 없다고 한다.

"둘 다 제 말을 잘 들어요. 한 번도 제 뜻을 거역하거나 대든 적이 없어요. 특히 큰딸은 사춘기일 텐데도 집이랑 학교 밖에 몰라요. 건전하게 남자친구 사귀어도 괜찮다고 해도 관심 없대요. 방세 15만원 내고 매일 아침 학교 갈 차비 주고 나면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서 사실 참고서도 제대로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밝고 반듯하게 자라주는 두 아이가 대견하고 기특할 뿐이에요."

다행히 안 씨는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현지는 전보다는 병세가 나아졌지만 여전히 뜀박질을 하기엔 무리다.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이는 현지는 심장박동기를 달아야 하지만 지금은 어려서 위험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어머니 옆에서 맑은 눈망울을 굴리는 현지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가수요" 한다. 그 말을 들은 안 씨도 "우리 애가 노래를 잘해요" 하고 거든다. 큰딸 현영은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안 씨의 말을 듣고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

현지네는 머잖아 정든 이곳을 떠나야 한다. 이 지역이 곧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금호동 언저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데, 지금처럼 보증금 2백만원에 월세 15만원짜리 방을 구하긴 힘든 처지다. 그래도 "두 딸이 곁에 있어 든든하다"는 안 씨와 "멋진 가수가 돼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현지를 보니 앞으로 닥칠 시련도 사랑과 웃음으로 잘 이겨낼 것만 같다.

♥ 현지를 돕고 싶은 분은 기아대책으로 문의하세요.
문의 · 02-2085-8301, 8302, 8335
계좌 · 국민은행 059-01-0536-352(예금주 : 기아대책)

경기 화성시 예당고교 1학년 최현정 양

"항암치료에도 힘든 내색 안했어요"

"자식 아픈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은 이렇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딸을 둔 오전숙 씨도 같은 심정이다. 오 씨의 딸 최현정(16) 양은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예당고등학교 1학년생이다. 현정 양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발병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완치했으나 지난 3월 초 6년 만에 병이 재발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날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사흘째였다.

"현정이에게 처음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 발병했을 때 완치하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렸어요. 이후 4년 동안은 병원을 오가며 외래진료를 받았어요. 4개월에 한 번씩 몸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했죠. 재발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금껏 잘 지내왔는데 지난 3월 초에 병원에 갔더니 재발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릴 땐 항암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했지만 재발하면 무조건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거든요."

병 재발 확인 후 서울대병원 소아암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현정 양은 5월 초부터 백혈구 수치가 골수이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돼 통원을 하면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재발 초기에는 백혈구 수치가 제로에 가까워 골수이식이 불가능했는데 현정 양이 정신력으로 병마와 싸워 이겨낸 것이다.

"처음 제가 재발 사실을 알려줬더니 현정이가 저한테 '나 죽는 거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했더니 '나,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하고 도리어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몸도 약한 애가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부모가 아파할까봐 힘들다고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정말 백혈구 수치가 다시 골수이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죠."

하지만 골수이식은 수술비도 만만찮을 뿐더러 딱 맞는 골수를 찾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현정 양의 부모와 오빠는 최근 골수이식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

"현정이의 병은 재발한 거라서 골수를 빨리 찾아 이식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둔 최현정 양.

줘야 해요. 외국에도 알려보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데다 오래 걸려서 국내에서 알아보는 중이에요. 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이 3명 정도로 추려졌는데 그중 한 명은 이미 맞지 않는 걸로 결론 나고, 다른 두 명도 맞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가 봐요. 일단 병원에서는 골수를 못 찾으면 급한 대로 제대혈로 치료해보자고 했어요."

오 씨는 현정 양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처음 마련한 집을 내놨다. 그 집을 사면서 융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팔더라도 남는 돈이 거의 없지만 우선 은행 대출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골수이식을 상담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드는 비용에 눈앞이 캄캄했다"는 오 씨의 얼굴은 어느새 눈물범벅이 돼 있었다.

"남편이 오랜 군 생활을 접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LG에 취직했어요. 회사가 수원이고, 아들도 수원대에 붙어서 정말 잘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 2월에 동탄으로 이사 오면서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현정이 수술비를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받고 싶어도 남편 연봉이 걸림돌이네요. 가진 건 빚밖에 없는데 이제 신입사원이나 다름없는 남편의 연봉이 수술비 지원 대상 기준을 넘어서 안 된다니 저희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막해하던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준 것은 뜻밖에도 현정 양의 친구들이었다. 이제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얼굴도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현정 양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모금운동을 벌인 것이다. 현정 양 돕기에는 예당고 학생회와 청소년적십자(RCY) 단원들도 함께했다. 학생회는 아침 등교시간에 피켓을 들고 현정 양 돕기에 참여를 호소했으며, RCY 단원들은 대한적십자사에 연락해 헌혈운동과 헌혈증 기증운동을 펼치는 우정을 발휘했다.

비싼 수술비에 맞는 골수 없어 이중고

예당고 전교생과 교직원들은 성금 3백60만9천원과 52장의 헌혈증을 모아 현정 양의 백혈병 치료에 써달라며 오 씨에게 전달했다. 헌혈증 덕분에 현정 양은 수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걸 받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현정이의 백혈구 수치가 지나치게 낮아서 수혈을 많이 받아야 했거든요. 현정이가 입원했을 땐 같은 반 친구들이 병문안을 온 적이 있는데 다들 엉엉 울더군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학교와 친구들은 저희에게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줬어요."

현정 양은 커서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두었다. 오 씨도 현정 양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건강해지길 고대하고 있다.

♥ 현정 양을 돕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문의 · 031-8003-0887, 010-5526-8071
계좌 · 신한은행 110-209-173600(예금주 : 오전숙)

남을 돕는 일은 이처럼 크고 작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메주와 첼리스트'로 잘 알려진 도완녀 씨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에 앞장섰던 경험 덕분에 가장 힘든 시기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강원 정선군에 있던 자신의 공장이 화재로 몽땅 타버렸을 때 전국 각지에서 성금과 식료품, 의류, 이불 등을 보내준 것.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도 씨의 말이 유독 여운을 남긴다. "베푸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동아DB

어려울수록 남을 돕는 배려와
나눔의 전통은 우리 민족의 속성이다.

개인보다 기업 비중 더 큰 실정… 한국 기부문화 현주소

우리에겐 품앗이 유전자가 있다

우리에게는 배려와 나눔의 유전자가 있어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나누려는 마음이 더 커진다.
하지만 선진국들에 비하면 기부문화가 열악하다. 사회지도층의 개인 기부가 더 늘어나야 한다.

기부라고 하면 흔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떠올리며 서구에서 시작된 문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에겐 두레, 품앗이, 향약과 같은 나눔의 전통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수재의연금이나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은 이런 전통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배려와 나눔의 유전자가 우리 핏속에 흐르고 있는 셈이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의 기부문화는 점점 성숙해가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기부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접수된 기부금을 보면 1999년 2백13억원에서 2008년 2천7백2억원으로 10년 사이에 13배 가까이 늘었다. 수많은 기부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도 이때부터다.

우리 민족은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나누려는 마음이 더욱 커진다. 지난해 하반기 1인당 실질소득(GNI)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자선단체 '굿네이버스'에 들어온 기부금과 기부 물품은 오히려 30퍼센트 늘었다. 구세군 자선냄비 역시 펄펄 끓어 모금 총액이 35억2천만원으로 2007년보다 14퍼센트(4억2천만원)나 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8년 연말모금행사에서도 2007년보다 5.6퍼센트(1백11억원) 늘어난 2천96억원이 걷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수경 씨는 "기업의 기부도 늘었지만 개인 기부, 특히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가 훨씬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기업 기부 빠르게 확산… 어려울수록 기부 활발

기부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통한 기부,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의 포인트를 모아 하는 기부 등 정보기술(IT)과 결합한 기부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

기업의 기부문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기업의 사회공헌이 정착된 경우는 외국에서도 드문 사례여서 미국 하버드비즈니스스쿨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연구할 정도라고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간한 '2007년 사회공헌 백서'에 따르면 전경련 소속 2백8개 기업의 사회공헌 관련

지출 비용은 1조9천5백56억원으로 기업 한 곳당 평균 94억여원에 이른다. 경상이익의 2.5퍼센트에 달하는 적지 않은 액수다.

경제포털 사이트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0조원 이상을 기록한 24개 대기업의 순이익은 전년에 비해 33.4퍼센트나 급감했지만 기부금 총액은 7천8백71억원으로 오히려 4.7퍼센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순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도 2007년 2.7퍼센트에서 4.3퍼센트로 크게 높아졌다.

기업의 기부 형태 역시 '기증 물품을 박스째 쌓아놓고 기념사진을 찍는' 식의 단계에서 벗어났다. 물품이나 성금 전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봉사활동 등과 결합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기업 이름을 내세운 기부에서 기업가가 개인 차원에서 사재를 털어 기부하는 개인 기부로도 발전하고 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도 회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을 개인 차원에서 기부한 것이다.

개인 기부, OECD 평균 훨씬 밑돌아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최신원 SKC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등 사재를 털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가들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12대 3백년에 걸쳐 조선시대 최고 부자로 통했던 경주 최부잣집엔 '육훈(六訓)'이라는 가훈이 있는데, '만 석이 넘으면 사회에 환원하라' '사방 1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어려운 사람들이 손을 집어넣어 잡히는 만큼 쌀을 가져가도록 구멍을 뚫은 '구멍뒤주'는 유명한 일화다. 이처럼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회지도층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현금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3년간 기부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5.5퍼센트였으며, 이들의 연평균 기부액은 약 6백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나눔문화가 아직은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미국 국민은 연간 수입의 약 2퍼센트를 매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개인 기부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1.67퍼센트에 달한다. 미국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민간기부 총액이 대부분 GDP의 2~3퍼센트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0.4퍼센트(2007년 기준)에 불과하다. 국민 1인당 기부액만 비교해도 미국 1백13만원, 캐나다 35만원, 영국 34만원인 것에 비해 한국은 10만9천원으로 차이가 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총모금액 중 개인 기부는 15.8퍼센트에 불과했다. 기업 기부가 67.5퍼센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2004년 기준)은 개인 비율이 75.5퍼센트이고, 기업은 4.8퍼센트에 불과하다. 선진국형 기부문화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개인 기부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

일부 기업들의 순수하지 못한 거액 기부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몇몇 대기업 총수는 자신과 가족의 불법, 비리가 사회문제로 불거지면 위기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재산의 사회 환원을 거론하곤 했다. 출연재산조차 사재가 아니라 기업의 돈인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사회적 범죄로 비난을 받은 뒤 회피성으로 내는 이른바 '속죄성 기부금'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G

글 · 최호열 기자


동아DB

국립중앙박물관 '명예의 전당'에는 유물이나 후원금을 기부한 이들의 명패가 전시되어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

모여라! 대한민국 기부천사들

“기부할 돈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먹고살 만해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니다. 사는 게 팍팍해도 따뜻한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없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과 나누려는 ‘기부 천사’들이 있어 세상은 살 만하다.


동아DB

가수 션 · 탤런트 정혜영 부부

“버는 대로 나눠주기” 이웃사랑 실천

지난 3월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극장을 방문한 고객 1천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하늘에서 1억원이 떨어졌다! 어떤 연예인과 함께라면 1억원을 선뜻 기부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52퍼센트에 해당하는 5백27명이 ‘션 · 정혜영 부부와 함께라면 1억원을 쾌척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만큼 가수 션(37)과 탤런트 정혜영(36) 부부가 함께 해온 기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연예계 최고의 잉꼬부부로 알려진 두 사람은 매일 1만원씩 모아 결혼기념일이 돌아오면 3백65만원을 기부한다. 또 두 아이의 생일에도 그렇게 한다. 매일 1만원씩 모은 돈으로 아이들의 생일이 되면 심장병 어린이와 귀가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수술비용으로 내놓고 있다. 앞으로도 쭉 그럴 계획이라고 한다.

얼마 전 이들 부부는 함께 쓴 책 〈오늘 더 사랑해〉의 인세 수입 1억원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부인 정 씨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은 올해 1백명에게 1인당 1백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들 부부는 국제어린이구호단체인 컴패션 코리아 홍보대사로도 활동하며, 컴패션을 통해 1백명의 아이들에게 매달 3백50만원의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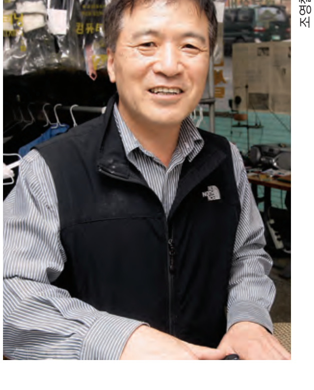
이들 부부는 버는 대로 다 나눠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션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다”고 말한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들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세탁소 운영 엄명호 씨

“아들 장례 때 받은 도움, 되돌려주려 합니다”

인천 산곡1동에서 ‘행운세탁소’를 운영하는 엄명호(55) 씨. 상가 건물에 7평을 세내어 세탁소를 하는 빠듯한 살림이지만 8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만은 중단하지 않고 있다. 그는 2002년부터 매달 홀로 사는 노인들의 도시락 배달사업에 1만원, 지역 어린이공부방에 1만원, 소아암 환자를 위해 1만원씩 기부하고 있다.

“별것도 아닌데 쑥스럽네요. 그저 혼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여러 사람이 한푼 두푼 모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는 거죠.”


조영철 기자

엄 씨는 2002년 아들 세준(당시 16세) 군을 뇌종양으로 잃었다. 아들이 사망했을 때 치료비 때문에 빚까지 진 상태였고,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었다. 주위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른 후 힘들었던 순간에 받았던 고마움과 아들에게 못다 준 사랑을 어려운 이웃

을 돕는 데 쓰기 시작했다.

"빚을 갚고 나서 시작하려니까 너무 늦을 것 같았어요. 한 달에 3만원은 없어도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빚은 아직도 다 갚지 못했다. 이제 6백만원이 남았는데, 처가에서 빌린 돈이라 이자는 안 줘도 된다며 웃는다. 경기가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세탁소 일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인정이 듬뿍 묻어난다.

가수 김장훈
"내 집은 없지만 더불어 사는 삶 노력"


동아DB

가수 김장훈(42) 씨는 연예계를 뛰어넘어 우리 국민 누구나 아는 기부천사다. 가수 데뷔 이후 공연 수입을 포함, 약 40억원을 사회 곳곳에 기부해 팬들 사이에선 "김장훈 콘서트를 보는 게 곧 기부"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터지자 태안지역에 5억원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직접 봉사대를 꾸려 서해안 살리기 방제작업에 나섰고, 지난해 여름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해안 페스티벌 공연을 기획했다.

그의 기부는 돈을 내는 데 그치지 않기에 더욱 값지다. 12년째 후원하고 있는 복지시설 '새 소망의 집' 어린이들에게는 후원자를 넘어 자상한 형이자 오빠다. 아이들을 수시로 영화관, 공연장, 스케이트장에 초대해 돈보다 귀한 추억을 선물한다. 얼마 전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파라오와 미라' 전의 음성안내를 녹음한 후 출연료 대신 아이들에게 줄 관람권을 받았다.

집도 없이 전세를 살고 있는 그가 최근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새 소망의 집에 기부하기로 약정해 또 한번 감동을 주었다. 한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출연료로 받은 오피스텔을 기부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서해안 페스티벌에서 공연 도중 쓰러진 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기부를 하게 됐다"고 그는 말한다.

김 씨는 기부천사라는 말이 부담스럽다고 겸손해한다. 그는 "내가 쓰고도 남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일 뿐"이라며 "다만 '공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소신과 양심만큼은 지키며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배우 문근영
"광고 찍고 받은 돈에 1억원 통큰 기부"

문근영 씨는 이제 겨우 스물두 살이다. 하지만 그의 기부는 어떤 재벌보다도 통이 크다. 그는 광고 모델료 등을 받으면 5천만~1억원 가량의 거액을 서슴없이 기부하는 스타일이다.

지난 4월 25일에는 3억여원을 기부해 만든 전남 해남의 '땅끝지역아동센터'를 비정부기구(NGO) 단체인 '굿피플'에 기증했다. 문 씨는 2006년 배요섭 목사 부부가 2002년부터 꾸려온 공부방이 부지 매각으로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고 3억여원을 지원해 공부방 주변의 땅을 매입하고 도서실, 컴퓨터실, 샤워실, 식당 등을 갖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주고, 아이들 통학차량까지 지원해 '땅끝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거듭나게 했다.

또한 수년간 '기적의 도서관'에 후원금을 내고 있으며, 독서운동회 '행복한 아침 독서'에도 1억원을 기부했다. 광주 빛고을장학재단에도 1억원을 기부했고, 고교 재학시절 학생복 모델료로 받은 3억원을 소아암 환자 돕기에 내놓았다.

문 씨의 숨은 기부는 지난해 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8억5천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개인 최고액 기부자가 문근영 씨라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그의 기부가 알려진 후 사회단체에는 기부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또 그가 도움을 준 '땅끝지역아동센터' 아이


동아DB

들도 그의 기부를 본받아 간식비와 통학비를 아껴 2년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기쁨을 아는 문 씨. 그가 우리 사회에 온정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김정연, 박부자, 배복동 할머니

"전세금 모아 '행복한 유산'에 기부"

서울 종로 금천교시장에서 20여년 간 떡볶이를 팔고 있는 김정연(93) 할머니는 전세금 8백만원과 예금 1천5백만원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내놨다. 김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박부자(85) 할머니와 배복동(92) 할머니도 각각 전세금 5백만원, 9백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유산으로 기부했다.

황해도 개성이 고향인 김 할머니는 서울에 왔다가 6·25 전쟁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채소장사, 꽃장사 등을 하며 혼자 살아왔다. 북에 두고 온 3남매 생각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내준 적이 많았다. 30년 전엔 사후 장기기증서약도 했다.

"내가 남을 도우면 내 자식들이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했어. 장기기증은 늙어서 쓸 데가 있겠냐만 고(故) 김수환 추기경처럼 눈이라도 주고 가고 싶어."

함북 나남 출신인 박 할머니도 전쟁통에 고향을 등지게 됐다. 미군 물품 판매, 식당 주방 보조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오면서도 교통사고를 당해 보상금으로 받은 돈까지 강원도 수해 복구 지원금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해왔다. 박 할머니는 "어차피 죽으면 없어지는 걸 욕심내서 뭐해. 언젠가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김수환 추기경 선종을 지켜보며 실천에 옮기게 됐지"라고 말했다.

남편과 다섯 자녀를 병으로 잃고, 평생 식모살이로 살아온 배 할머니도 "3평 지하방 전세금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 세 할머니는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방에서 살고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도 밝고 따뜻하다. 세 할머니처럼 '행복한 유산 캠페인'에 동참하기를 원하면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02-3144-0101·담당 조승석 과장)하면 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세금을 유산으로 기부한 김정연, 박부자, 배복동 할머니(왼쪽부터).

붕어빵 장사 이문희 씨

"5백원 동전 따로 모아 이웃 도와요"


연합

충북 영동군 영동읍 중앙시장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이문희(51) 씨는 붕어빵을 팔아 모은 돈으로 9년째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손님들이 붕어빵 값으로 5백원짜리 동전을 내면 무조건 돼지저금통에 넣었다가 연말에 읍사무소에 전달한다. 영동읍사무소는 이 씨가 기부한 돈으로 쌀을 사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전달한다.

"손님한테 받은 5백원짜리는 아예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날은 저금통에 한 개도 못 넣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만원 가까이 넣을 때도 있고 그래요.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길까봐 열어보지도 않아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는 그는 농사만으로는 살림이 빠듯해 농한기에 반찬값이라도 벌 요량으로 2000년부터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다.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농사일이 덜 바쁜 9월부터 이듬해 4월 초까지만 붕어빵 장사를 한다.

이 씨는 장사를 하면서 아직도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려운 이웃이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이 어린 시절 받았던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0대에 부모를 여의고 동생을 돌보며 어렵게 살았던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시절 주위에서 준 라면 몇 개, 김치 한 그릇이 큰 힘이 됐다고 한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생활이 넉넉지 않으니까 큰돈을 내놓지는 못하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하는 거죠."

이 씨는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희망이 거창한 것은 아니죠. 땡볕 아래 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그래도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게 희망 아니겠어요?"

안경점 운영 장사울 씨

"20년째 기부… 15만명에 밝은 빛 주었죠"

지난 3월 5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영구 귀국한 경기 안산시의 고향마을 노인들은 "침침했던 세상이 환해졌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안양시 평촌에서 '대학당안경원'을 운영하는 장사울(48) 씨로부터 맞춤 안경을 선물받았기 때문이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안경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고마운 도구다. 20년째 안경 기부를 해온 장 씨 역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고마운 사람이다.

장 씨는 1988년 안경원을 열면서부터 안경 기부를 해왔다.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안경을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무료로 안경을 맞춰줬고, 지금은 중국 ,러시아, 터키, 베트남, 브라질, 에콰도르 등 해외로까지 봉사 무대를 넓혔다. 지금까지 그가 무상으로 안경을 만들어준 사람만 15만명에 이른다.

1995년 중국에 갔다가 돈이 없어 안경을 쓰지 못하는 노인을 보고 중국에서 안경 봉사를 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2007년 9월에는 산둥과기직업대학(山東科技職業大學)에 사재를 털어 안경학과를 개설했다.

"인구 13억명의 중국에 안경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고작 16곳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안경학과 졸업생들이 중국 전역으로 진출해 중국인의 눈 건강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장 씨는 "그저 고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경점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라지만, 돈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까지 기부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일까.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안경을 맞춰주고 있는 장사울 씨(가운데).

가수 장나라

"팬들이 있기에 기부가 있는 것이죠"

동아DB



장나라(30) 씨는 2001년 데뷔 후 국제기아대책기구 등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문근영, 김장훈 씨 등과 함께 대표적인 기부천사로 불려왔다. 그동안 장 씨가 한 개인 기부도 50억원이 넘고, 기업 후원을 통해 장 씨의 이름으로 한 기부액은 1백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알려진 것만 해도 2002년 수해 성금으로 1억원, 2003년 북한 어린이에게 분유 보내기 운동에 5억원, 중국 지진 피해지역인 쓰촨성에 1억원 등을 기부했다.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 씨의 기부는 중국 현지에서도 유명하다. 쓰촨성 지진 피해로 무너진 레이구 소학교 재건을 도왔으며, 그 덕분에 이 학교에는 그의 이름을 딴 '장나라 음악교실'이 생겼다. 또 얼마 전에는 그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오리털 점퍼 회사의 지원으로 쓰촨성에 80억원어치의 점퍼를 기부하기도 했다. 이런 기부는 모두 CF에 출연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물품으로 지원받는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장 씨의 국경을 넘은 기부는 대한민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진정한 한류(韓流)를 만들어내고 있다.

장 씨의 아버지 주호성 씨는 "딸이 어린 나이에 분에 넘치는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니 기부로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딸의 기부는 혼자 하지 않고 언제나 팬들이 함께해 주었다"고 했다. G

글 · 이혜련 객원기자

응답자 80퍼센트 "유명인 기부활동, 기부동기 영향 크다"

문근영 · 김장훈 보며 '나도 한번 해볼까'

지난해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국 성인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유명인의 기부가 기부동기에 영향을 끼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4퍼센트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배우 문근영 씨나 가수 김장훈 씨 등의 선행이 기부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문 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최고액 개인 기부자로 알려진 후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크게 확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기부활동을 '2008년 10대 히트상품'으로 선정하며 연예인의 기부가 개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훈훈한 기운을 전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기증 소식이 알려지자 장기기증 관련 문의가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많은 팬이 있는 스타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기부로 유명한 스타의 팬클럽 회원들은 기부금을 내거나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동방신기는 팬들에게 "내게 선물을 주는 것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동방신기 팬들은 동방신기 멤버의 이름으로 각종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다.

'테레사 효과'라는 의학계의 연구결과가 있다.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돕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돼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기부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몸도, 사회도 건강해진다.

나눔도 가지가지…이색 기부자들의 세계

전화 1통… 물 한방울로 'give'

마라톤이나 사이클을 통해 사랑을 실천할 수도, 간단하게 전화 한 통화로 나눔을 실천할 수도 있다.
다양하게 기부문화를 전파하는 이색 기부자들을 만났다.

ARS 기부왕, 김금재 전북대 명예교수

"2천원으로 하루가 즐거워요"



2천원이면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하면 전화 한 통화로 2천원을 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쉽고 빠르게 기부할 수 있는데다 액수에 부담이 없어 이웃사랑을 나누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꼽힌다.

ARS를 통해 하루에 한 번 꼴로 기부하는 김금재(61) 전북대 간호학과 명예교수는 ARS 기부왕으로 불린다. 김 교수가 지난해 ARS로 기부한 금액만 73만원, 3백65회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다. 지금도 매일 ARS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휴대전화 뒷 번호가 '1004'인 그는 나눔 천사라 할 만하다.

"제가 좀 게을러요. 은행에 생활비 넣어놓고 이렇게 전화 하나로 간단하게 기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밥 한 끼 줄이는 것은 부담도 안되고요. 그냥 밥 먹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김 교수의 '나눔 정신'은 복잡하지 않다.

"제가 밥을 먹으면 이웃도 밥을 먹어야죠. 제가 병원에 갈 수 있으면 이웃도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하고, 제가 교육을 받으면 이웃에게도 기회를 줘야죠."

김 교수는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진다고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ARS 기부를 하고 있다"며 "이런 나눔이 촛불이 되고, 빛이 되고, 밥이 되어 세상이 따뜻해지고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된다고 굳게 확신한다"고 말했다.

"식사 한 끼를 나눔으로써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내 밥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나눔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적은 액수지만 이 돈이 다른 사람에게는 꿈과 희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김 교수는 오늘도 전화를 들고 나눔의 ARS 번호(사회복지공동모금회 060-700-1212)를 누른다.

기부하는 마라토너 김현우

"나눔도 한 걸음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마라톤대회가 열리는 한 결식아동돕기도 계속할 겁니다. 달리는 사람들에게 자신만을 위한 운동보다 이웃을 도우며 살자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합니다."

마라톤대회 때마다 기부문화운동을 펼치는 마라톤 동호인 김현우(50) 씨는 2001년부터 인터넷상으로 성금을 모으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대회에 처음 참가했을 때 동호인끼리 각자 완주 시간을 걸고 점심 얻어먹기 경쟁을 벌였는데, 이럴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결식아동을 돕는 것이 어떻겠냐고 누군가가 제안하더군요."

이를 계기로 모금을 시작한 그는 주요 마라톤 사이트에



'사랑의 달리기'를 소개한 뒤 참가자들로부터 1만원 이상씩 기부금을 모았다. 2001년 7백70만원을 비롯, 해마다 4백50만~7백50만원씩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마라톤 풀코스(42.195킬로미터)를 38회, 울트라마라톤(1백 킬로미터)대회에도 15회나 출전한 김 씨는 각종 대회 참가 소감을 담은 에세이집을 발간하고 인세 전액도 기부하고 있다. 그는 "외국의 마라톤대회를 보면 우승 상금을 비롯한 수십억원의 기부금이 쌓인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나눔의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사랑더하기 사이클 대장정' 코미디언 황기순

"초심 잃지 않고 나누는 삶 살겠습니다"

코미디언 황기순(46) 씨는 10년째 해마다 여름이면 '사랑더하기 사이클 대장정'을 하고 있다. '사랑더하기 사이클 대장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휠체어 마련을 위해 황 씨가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사이클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거리 공연을 펼쳐 모금하는 행사다. 지난해에는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해 이홍렬, 김정렬, 김명덕, 최형만, 이용식, 박준규 등 동료들과 돌아가며 참여해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모아진 시민들의 풀뿌리 모금액은 2000년 6백만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3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모금액은 전액 장애인들의 휠체어 구입비와 치료비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8백여 대의 휠체어를 기증했고, 2007년 12월에는 기업들의 후원을 모아 50대의 휠체어를 추가로 기증하기도 했다.

황 씨는 "매년 같은 곳을 찾다보니 이젠 알아보는 분들도 많고, 지방에서는 중소기업과 각종 단체에서도 참여가 늘어 더욱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나누는 삶을 살겠다. 많은 분들이 나눔에 중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명의 우물 파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어린이들이 물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야죠"

전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지구촌공생회 대표)은 캄보디아, 몽골, 케냐 등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우물을 파는 일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대다수 가정에서 우기에 내리는 빗물을 커다란 항아리에 담아뒀다가 쓰고, 건기에는 웅덩이에 고인 물도 마신다. 상수도시설도 열악해 인구 1천3백60만명 중 불과 13퍼센트만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 발생률이 높고, 유아사망률이 1천명당 80명에 이를 정도로 위생 상태가 낙후돼 있다.

지구촌공생회는 2005년 초 프놈펜에서 2백 킬로미터쯤 떨어진 캄폿주에 초등학교를 지어줬는데, 주민들이 "학교도 중요하지만 마실 물이 없어 고통스럽다"며 우물을 파달라고 요청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때부터 생명의 우물을 파기 시작해 2009년 1월 현재 7백23개를 완공했다. 수질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도 따로 배치하고 있다.

강만곤 지구촌공생회 홍보팀장은 "물 부족 국가의 국민들에게 깨끗한 생명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물파기 사업을 꾸준히 해나갈 뿐 아니라 스리랑카, 라오스 등지에서 펼치고 있는 어린이 교육사업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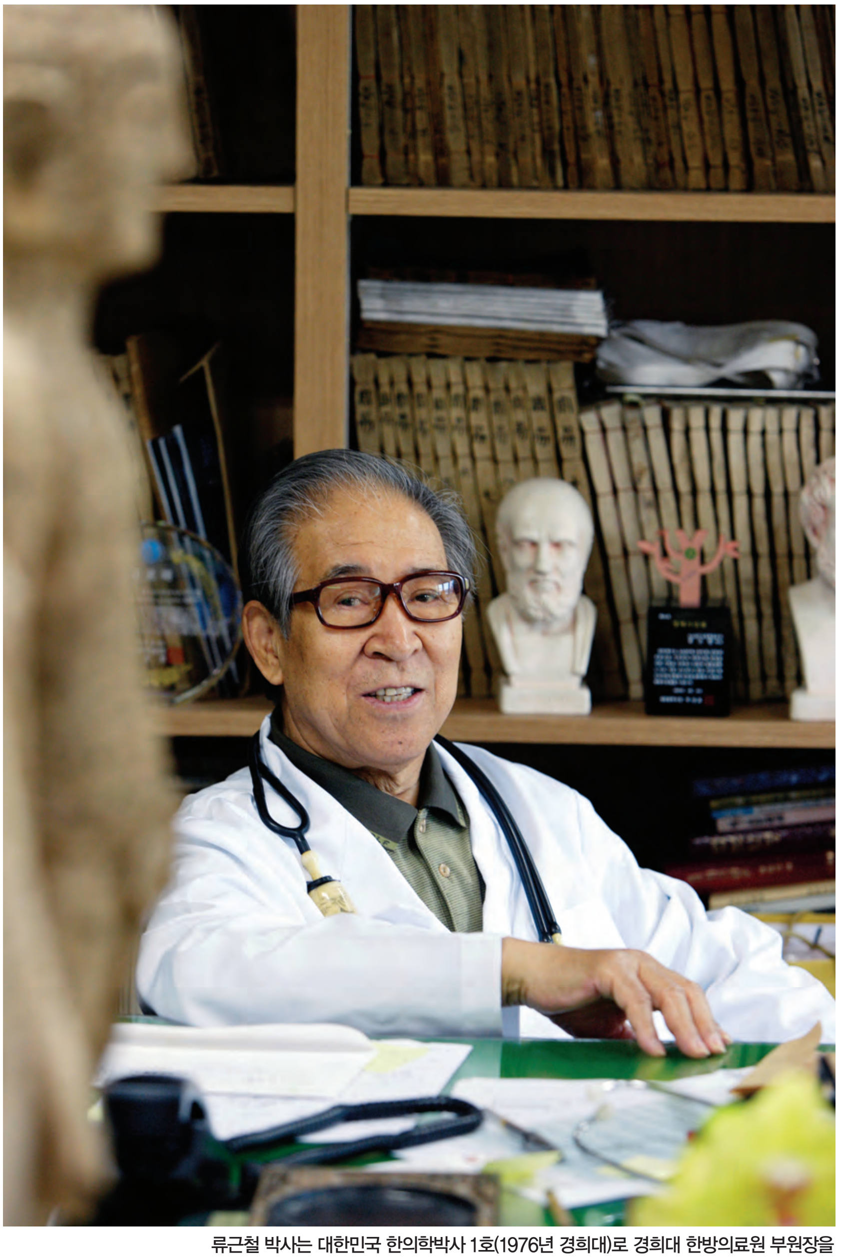
글 · 최호열 기자



카이스트에 5백억 기부한 류근철 한의학박사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과학 투자금이죠"

한의학계 원로 류근철 박사는 지난해 5백억원이 넘는 재산을 카이스트에 내놓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기부액은 국내 개인 기부 사상 최다액이다. 류 박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제2의 기부를 준비 중이다.



류근철 박사는 대한민국 한의학박사 1호(1976년 경희대)로 경희대 한방의료원 부원장을 지냈으며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공과대학 종신교수이기도 하다.

"좋은 날 오셨네요.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어제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께서 생일 파티를 미리 열어 주셨어요. 총장께서는 제 나이를 38세로 만들어 주셨지요. 실제론 83세지만 열정은 젊은이 못잖으니 38세로 살라고요. 하하."

5월 7일 대전 유성구의 카이스트(KAIST)를 찾았을 때 한의학자 류근철 박사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류 박사를 만난 곳은 카이스트 교내 인문사회과학부동 2층에 자리한 '닥터 류's 헬스클리닉'. 카이스트 특훈(特勳) 초빙교수이자 명예박사인 그는 카이스트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직접 보살피기 위해 지난 4월 13일 이 클리닉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학생들이 언제든 들러 지친 몸과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곳이죠. 지금은 하루에 50명 가량 오는데 최대 1백50명까지 무료 진료가 가능할 것 같아요."

대상 물색에만 10년… 국내 개인 기부 사상 최다액

자비를 들여 꾸민 헬스클리닉에는 한방 진료시설은 물론 류 박사가 개발한 의료기기인 '헬스부스터' 8대가 설치돼 있다. 류 박사는 헬스부스터에 대해 "러시아 모스크바대에 있는 2대를 포함해 세계에 10대뿐인 기기로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관절염 치료효과가 탁월하다"며 "세계시장에 내놓기 위해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성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산업디자인과에서는 상품성 있는 디자인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류 박사는 헬스클리닉 내 모든 설비와 기기 소유권, 그리고 헬스 부스터 상표권까지 카이스트에 기부했다.

류 박사의 카이스트 사랑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류 박사는 지난해 8월 평생 모은 부동산과 골동품 등 5백78억원 상당의 사재를 카이스트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이는 국내 개인 기부 사상 최다액이다. 지금도 시장에서 파는 1만원짜리 바지를 고집할 만큼 평생을 '자린고비'처럼 아끼며

살아온 그가 선뜻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은 데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부모님이 3·1운동 때 만세를 부르러 나갔다가 아버지는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한동안 정신분열증을 앓으셨어요. 그 때문에 형편이 많이 어려웠는데 어머니는 거지가 오면 그냥 보내지 않고 당신 끼니를 내주셨어요. 정신분열로 고생하는 이웃들에게도 당신이 드실 끼니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주셨고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제 삶에 자극이 됐죠."


카이스트 교내에는 류근철 박사가 기증한 5백여 점의 골동품도 전시돼 있다.

류 박사는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은 후 10년 동안 대상기관을 물색하는 데 공을 들였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도 보람되지만 좀 더 뜻깊은 일에 쓰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과학입국에 일조하는 것을 평생 신조로 여겨온 그는 카이스트를 만나 꿈을 이뤘다.

"모교인 경희대에는 죄송하지만 저로선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일반 대학과 달리 카이스트는 국가가 운영하는데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과학도를 키워내는 곳이잖아요. 저는 기부를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발전을 위해 '투자'한 거예요. 훌륭한 과학자 1명이 1백만명, 아니 1천만명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카이스트 인재·우주인 건강센터'로 우주인 수백 명이 찾아와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들은 우리 한의학이 얼마나 대단한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센터가 세계적인 우주인 전문치료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 박사의 기부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고맙게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특히 연세대 교수인 큰아들은 "아버지는 10대(代)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분"이라며 그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단다. 2남 3녀를 둔 류 박사는 "내심 서운하게 생각하는 자식도 있겠지만, 카이스트에 기부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카이스트에 제2의 기부를 할 거예요"

헬스클리닉 바로 옆방에는 류 박사가 평생 수집한 탱화와 옥새, 불상, 벼루, 향로 등 골동품 5백여 점이 전시돼 있다. 카이스트에 기증한 이 골동품들은 그가 "연구가 잘 되지 않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모아둔 것들"이라고 한다. 평상시엔 닫혀 있지만 학생들이나 카이스트를 찾은 손님이 구경을 원할 때면 언제든 열리는 골동품 전시실은 가히 박물관을 방불케 했다.

또한 헬스클리닉과 같은 날 문을 연 '카이스트 인재·우주인 건강센터'에서는 우주비행사들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받는 충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연구가 한창이었다. 류 박사는 "오는 10월 이곳으로 세계 각국의 우주인 수백 명이 찾아와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예요. 당초 방문 일정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지만 치료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일주일 이상 체류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에요. 우주인들은 틀림없이 우리 한의학이 얼마나 대단한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곳 건강센터가 세계적인 우주인 전문치료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류 박사의 기부금을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할 예정인 세종캠퍼스 부지 매입과 캠퍼스 조성사업에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카이스트를 세계 최고 대학으로 만들고자 하는 류 박사의 뜻을 감안해 세종캠퍼스를 '카이스트 류근철캠퍼스'라 이름 붙이고 동상과 기념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류 박사의 활약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류 박사는 앞으로 '카이스트 사랑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카이스트발전재단 명예이사장을 맡아 카이스트 발전기금 조성과 세계화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그는 "현금으로 하는 제2의 도네이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영양군에 카이스트 파크가 조성되는데 그곳엔 카이스트 수련원과 유공자 동산이 들어섭니다. 유공자 동산엔 카이스트에 25억원 이상 기부한 공로자만이 묻힐 수 있죠. 제2의 기부액을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많을 겁니다."

류 박사는 인터뷰를 마치며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

글·김지영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대기업도 기부 솔선수범

사회공헌에 기업가치 달렸다

국내 기부 문화의 중심에는 이웃 사랑을 꾸준히 실천해온 기업들이 자리한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일궈내고 있는 이들 기업의 다채로운 기부 활동을 소개한다.

삼성 1천8백72억원, 현대·기아차 5백44억원, SK 5백5억원, LG 4백76억원, 국민은행 4백50억원, 포스코 3백59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10년 동안 가장 많이 기부한 기업의 명단과 명세를 이같이 공개했다. 그러나 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기업들은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활발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은 1994년 '사회공헌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이건희 전 회장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삼성사회봉사단을 조직했다. 이는 국내 기업 최초의 사회공헌 조직이다. 삼성그룹은 2004년부터 전국 소년소녀가장에게 매월 20만원씩 학업보조금을 지원해왔는데, 그 규모는 지난해까지 총 2백50억원에 이른다. 특히 2007년부터는 임직원들과 소년소녀가장이 1 대 1로 멘터링을 맺어 학업과 정서적인 안정까지 돕고 있다.

2004년부터 지원하는 열린 장학금은 부모의 실직이나 파산, 중병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지만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의가 남다른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장 추천과 자신을 포함한 친구, 학부모 등의 자율추천을 통해 매년 전국에서 3천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1년간 등록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전액이 지원된다.



포스코는 국내외 재해지역 이주민을 돕기 위해 매년 긴급구호키트를 제작하고 있다.

빈곤층 아동을 위한 희망의 공부방 만들기는 공부방 시설 개·보수, 교육자재 제공, 보험가입, 야간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해오고 있다. 희망의 작은 도서관 사업은 2006년 농산어촌 2백인 이하 초등학교를 선정해 57개 도서관에 5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소규모 민영 도서관 76개에 리모델링 및 도서구입 비용으로 27억원을 지원했다. 얼굴기형수술을 지원하는 밝은 얼굴 찾아주기 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백57명의 수술을 지원했으며 외래 진료는 4천여 건에 달한다.

이주노동자 긴급 의료비·진료비 지원

'함께 움직이는 세상'을 지향하는 현대·기아차그룹은 2005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총연맹과 함께 의족과 특수화가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에는 저소득 장애인 3백91명에게 의족과 특수화를, 2007년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1백76명에게 활동형 의족을 지원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장애아동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아이마루' 설립도 도왔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이주노동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활발하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지난해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와 희년의료공제회에 5억원을 전달해 이주노동자들의 긴급 의료비와 진료비로 쓰도록 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자녀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남양외국인근로센터, 베들레헴어린이집, 안산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등 4곳의 이주노동자 보육시설에 약 2억2천만원을 기탁했다.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은 2005년부터 현대카드 회원이 포인트를 기부하고 회사도 그만큼을 출연해 기부하는 '사랑의 M포인트 기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2005년에는 1천만 포인트를 모았으며, 2006년부터는 목표 모금액인 2천5백만 포인트를 달성하는 쾌거를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모금 시행 15일 만에 2천5백만 포인트 모금이 완료돼 협력기관들



가정의 생활을 돕기 위해 사랑의 집짓기 행사를 지원해온 삼성.

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분야별로 5개 공익재단을 운영 중인 LG는 LG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LG복지재단은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7년부터 연간 15억원을 지원해 경기 파주시, 경북 구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한 곳씩 어린이집을 지어 기증하고 있다. 또 2005년부터 올해까지 5억원을 들여, 정부 지원 없이 후원금과 자원봉사만으로 운영되는 전국의 무료 진료시설도 돕고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전국 1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4억원 상당의 이동목욕차량을 기증해왔다. 이동목욕차량을 기증받은 지역 보건소나 사회복지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 환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 '인재 육성'에 올인

이와 별도로 LG는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도 지속적으로 기탁해오고 있다. 지난해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지역에 총 1천7백만 위안(약 25억5천만원)의 복구 성금을 지원한 것이 좋은 예다. 이 복구 성금은 LG전자를 비롯한 6개 계열사가 함께 마련해 중국 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됐다.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 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무엇보다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한 교육사업은 3개 재단에서 맡고 있다. 국내 및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인재를 길러내는 포스코교육재단과 포스코청암재단,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포스텍(POSTECH)이 그것이다.

포스코는 1991년부터 한 부서가 한 마을과 자매결연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다. 지금까지 포항 1백18개 마을, 광양 1백6개 마을 등 총 2백24개 마을이 포스코의 자매가 됐다. 포스코는 결식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인 '나눔의 집'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나눔의 집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60만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매년 실시하는 사랑의 헌혈 릴레이에는 출자사와 외주 파트너사까지 참가해 5년 동안 1만8천명이 따뜻한 사랑을 나눴다.

이웃사랑 성금 기탁은 물론 지구촌 나눔문화 확산에도 열심인 포스코는 2005년부터 매년 국내외 재해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키트(생필품세트)를 제작해왔다. 이 구호키트는 북한 홍수피해 이재민과 제주도 태풍 피해 가정, 파키스탄과 인도의 강진 재난지역 등에 전달됐다.

SK와 국민은행도 기부 붐 조성에 한몫하고 있다. SK는 장학금을 비롯해 연탄, 김장, 식사 등을 제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희망공부방, 행복한 밥상, 작은 도서관 등의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극빈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한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적극적인 기부 활동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면서도 "기부를 말로만 하는 무책임한 일부 기업은 결국 어렵게 쌓은 기업 이미지와 신용을 잃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G

글 · 김지영 기자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세계의 박물관들

선진국은 왜 박물관에 기부할까?

문화에 대한 기부가 늘고 있다. 세계적인 박물관, 미술관들은 기부를 받지 않고는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다. 왜 기업들은 박물관에 거액의 돈을 기부할까. 그리고 문화에 대한 기부가 갖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스대학에 1백70억원을 기부했다는 기사가 5월 11일 해외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학으로는 사상 최고 기부금을 받은 뉴사우스웨일스대학은 이 기금으로 에이즈 치료제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때 세계 컴퓨터업계의 황제로 불렸던 빌 게이츠. 그는 이제 '자선사업의 황제'라고 불릴 만하다. 지난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직에서 물러난 빌 게이츠는 1억 달러의 사재를 출연해 만든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멜린다는 빌 게이츠의 아내 이름)의 대표로 취임해 컴퓨터 사업가에서 자선사업가로 변신했다. 세계 최대 규모 자선단체인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게이츠 재단)은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선정한 '세계 5대 비정부기구(NGO)'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다.

빌 게이츠는 은퇴 전부터 "내가 가진 재산의 99퍼센트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이미 2000년에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 자선사업가로서의 변신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현재 게이츠 재단은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난치병 치료약 연구와 아프리카 기아 돕기, 제3세계 백신 구호사업, 미국 공립도서관 지원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빌 게이츠의 행보는 석유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뒤 말년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시카고대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자선사업을 벌였던 20세기 초의 거부 존 록펠러를 연상시킨다.

AP



재산의 99퍼센트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한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전 회장 부부.

서구사회에서 기업가들의 거액 기부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게이츠 재단에 무려 3백10억 달러를 기부해 개인의 기부 금액으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는 나이를 초월한 절친한 친구 사이이기도 하다. 또 히피 사업가로 유명한 영국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재산 80억 달러의 절반을 지구 온난화 방지사업에 기부하겠다고 약정했다.

운영비 절반 이상이 기부금… 대부분 무료입장

이 같은 기부 행렬은 주로 제3세계의 기아 돕기나 의료시설, 공공서비스 확충 등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외의 분야에도 기부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 거액을 기부해서 새로운 작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기부'도 일반적인 편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예술 분야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더더욱 문화기부가 활발하다.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나 뉴욕현대미술관(MoMA), 영국 내셔널갤러리 등을 관람하다 보면 작품 밑에 'ㅇㅇ기업이 기증한 작품입니다' 같은 설명이 달려 있는 경우를 흔히 본다. 예를 들면,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 런던 테이트 모던에 소장되어 있는 독일 사진가들의 사진작품에는 대부분 '도이치은행 기부'라는 명패가 붙어 있다. 도이치은행으로서는 작품 기부로 세금을 감면받고, '미술에 기여하는 세련된 은행'이라는 이미지를 고객에게 심을 뿐 아니라, 자국의 유망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1석3조인 셈이다. 미국 대형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 중 80퍼센트 정도는 기부금으로 사들인 것이거나 기증 작품이라는 통계도 있다.


동아DB

일본 국민기업 산토리가 일찍이 문화기부를 실천해 1961년 도쿄에 개관한 산토리미술관.

아예 자신의 컬렉션 전체를 국가에 기부하는 예도 있다. 올해 개관 2백50주년을 맞은 영국 대영박물관은 왕실 주치의였던 한스 슬론 경의 수집품 7만여 점을 기부받아 문을 열었으며, 테이트 브리튼, 테이트 모던, 테이트 리버풀 등 영국 전역에 4개의 미술관이 있는 테이트갤러리도 헨리 테이트 경이 자신의 소장품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설립된 것이다.

현재 연 5백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유럽 최고의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은 총 운영비의 60퍼센트를 기업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문화기부 풍토가 자리 잡은 영국은 대영박물관과 내셔널갤러리 등 대부분의 미술관이 무료입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 영국 프리미어리그 애스턴 빌라의 구단주 랜디 러너는 그 자신이 미국인임에도 런던의 국립초상화미술관에 5백만 파운드(약 1백억원)를 선뜻 내놓아 화제를 모았다. 영국 역대 위인 1천여 명의 초상화를 전시하고 있는 국립초상화미술관은 전시실 1층에 러너의 이름을 붙여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미술관 측은 이 기부금으로 새로운 작품을 구입하는 한편, 작품 구매 예산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초상화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기부는 사회 전체,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와 젊은층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업으로선 문화기부를 통해 기업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적지 않다.

일본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일본 국민기업으로 일컬어지는 산토리는 일찍이 문화기부를 실천해 1961년 도쿄에 일본 전통미술 전문 박물관인 산토리미술관을 열었으며, 1986년에는 클래식 전문 공연장인 산토리홀을 개관했다. 산토리홀은 일본에서 가장 음향이 좋은 공연장으로 손꼽힌다.

문화기부의 의미는 사회 전체,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와 젊은층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기업으로선 문화기부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적지 않다. 물론 개인의 소액 기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무료입장인 영국의 박물관, 미술관 입구에는 '미술관 운영에 당신의 힘을 보태주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기부금 박스가 놓여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10파운드(2만원) 지폐들이 적잖게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부 덕에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또 무료입장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개인의 소액 기부가 잇따르는 것이다. 이처럼 기부는 또 다른 기부를 낳는다.

우리나라에도 박물관에 문화재를 기증한 사람이 있다. 〈성문종합영어〉의 저자 송성문(68) 씨가 그 주인공이다. 송 씨는 2003년 국보 제246호 대보적경(大寶積經) 등 국보 4점과 보물 20여 점 등 1백1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유물들은 송 씨가 베스트셀러 참고서로 번 돈으로 구입한 수준 높은 컬렉션이다. 박물관 측은 감사의 뜻으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지만 송 씨는 기증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을 정도로 나서기를 꺼렸다는 후문이다.

지난 3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그동안 유물, 후원금, 도서 등을 쾌척한 기증자들을 기리기 위한 '명예의 전당' 개관식이 열렸다. 송 씨는 명예의 전당에 소개된 기증자 2백42명 중 두 번째로 많은 유물을 기증한 것으로 기록됐다. 한국 현대사박물관 격인 '국립대한민국관'이 서울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 자리에 들어선다. 2013년 개관을 목표로 한 국립대한민국관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긍지를 안겨줄 박물관이기에, 이 공간에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전시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일단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네거리에 이 박물관이 들어선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경복궁 앞이라는 상징성도 있거니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화문 네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물관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영국 대영박물관의 경우처럼, 기업이나 재단의 기부를 받아 박물관을 운영하고, 입장료를 무료로 해서 모든 국민에게 이 공간을 개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G

글 · 전원경 객원기자

후원금으로… 포인트로… 음식으로… 재능으로

마음을 나누자, 착하게 쓰자

부자라야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면 기부할 마음이 생긴다. 가슴에 온기가 도는데도 기부할 방법을 몰라 망설이고 있다면, 감동적인 방법을 여기서 찾자.

“성년의 날을 맞은 여자 친구를 위해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이 됐어요. 장미와 향수는 너무 식상하고… 그러던 중 착한 제 여자 친구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 친구 이름으로 1 대 1 해외아동 결연 신청! 선물 대신 후원금을 제가 내고, 여자 친구는 예쁜 동생이 생겼습니다.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는 첫발을 내디딘 것 같아요.” (최준혁 · 한혜림 커플)

“우리 아이만을 위한 돌잔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비용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용되면 우리 아이가 컸을 때 자랑스럽게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준식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마음을 갖고 자라면 좋겠습니다.” (이원호 님 가족)

최근 개설한 기부 포털 사이트 ‘기부스타트(www.givestart.org)’에 있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사연이다. 수십 년 모은 재산을 선뜻 사회에 내놓는 사람들이나, 연말연시에 돈과 쌀을 남몰래 이웃에게 전달하는 이들의 선행이 큰 감동을 줄 때가 있다.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에서 비롯된 작은 기부도 감동을 줄 수 있다.



다양한 기부 방법을 알려주는 기부 포털 사이트 ‘기부스타트’(www.give start.org).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아도 취업에 성공한 기쁨, 프러포즈를 받았을 때의 설렘, 생일 및 결혼 축하를 이웃과 나눌 수 있다. 월 1만 원 이상 정기 후원하고, 20만 원 이상 일시 후원하면, 특별히 기념하는 날의 사진을 넣은 나눔 증서도 받아볼 수 있다. ‘기부스타트’를 방문해 ‘내 생애 최고의 날’ 항목을 클릭하면 다양한 기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기부한 이웃들의 감동적인 사연도 읽을 수 있다.

나의 작은 성의가 어디에 쓰이면 좋을까. 1991년 한국인이 설립한 ‘굿네이버스’는 국내는 물론 방글라데시, 케냐, 에티오피아, 르완다, 타지키스탄, 네팔 등 20개국과 북한에서 구호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아동과 결연을 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이 있다. 해외구호개발사업이나 대북지원사업, 국내 아동 권리보호사업 등 특정 사업에 후원해도 된다. 해외아동과 결연을 하면 3, 4주 만에 내가 후원하는 아동을 소개하는 카드를 받아볼 수 있다. 기관에서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편지교환도 가능하다.

‘굿네이버스’ 후원금은 교육 및 보호,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세 가지 영역에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 쓰이거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된다.

후원금은 교육 및 보호,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세 가지 영역에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 쓰이거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된다. 예컨대 후원금으로 아동의 학비를 대고, 학용품과 교복 및 의류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도서관을 지원하거나 교사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부 방법은 간단하다. ‘굿네이버스’(goodneighbors.kr)나 ‘기부스타트’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02-6717-4000)를 통해 정기 후원이나 일시 후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기부금은 은행계좌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물품 기부는 이메일(gni@gni.

동아DB



굿네이버스가 5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구촌 빈곤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kr)로 문의하면 된다.

'월드비전(worldvision.or.kr)' 역시 국제구호개발기구다. 이 기구는 1950년 6·25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고아와 남편을 잃은 부인들을 돕기 위해 미국인 선교사 밥 피어스와 한경직 목사가 설립한 것. 이 기구는 현재까지 세계 1백여 나라에서 1억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아동과 결연을 할 수 있고, 국내외 사업을 위한 정기 및 일시 후원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상품권으로 유니세프 후원금 낼 수도

전 세계 어려운 가정과 아이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보내는 것도 남다른 의미가 있을 듯하다. '희망의 선물' 사이트(gifts.or.kr)에서 선물을 선택해 결제하면 월드비전 해외사업장 및 국내 복지관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이 전달된다. 컴퓨터(1백50만원), 소(38만원) 등 다소 비싼 선물이 있는가 하면, 책상과 의자(8만원), 염소(6만원), 닭(2만5천원), 담요(2만2천원), 교복 및 책가방(각 1만2천원), 칫솔키트 및 모기장(각 7천원) 등 우리 이웃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이 다양한 가격에 소개돼 있다. 국제개발 NGO '굿피플(goodpeople.or.kr)'의 '사랑의 가게', '어린이재단(childfund.or.kr)'의 '참! 착한 쇼핑'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낼 수 있다.

빨간색 '사랑의 열매'가 상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크고 작은 정성들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이다.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홀로 사

신용카드 포인트 OK, 휴대전화로도 OK! 정치 후원금 기부, 참~쉽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후원금을 기탁하는 것이지만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나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전화로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기부센터는 기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해오던 종이영수증 대신 인터넷을 통해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의 경우 해당 신용카드회사에서 현금화해 고객이 원하는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면 된다. 이때 고객은 후원회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이나 기탁금영수증을 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한카드, 제주은행, 광주은행, 국민카드, BC카드, 구 LG카드 등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단, 제주은행과 광주은행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고, 국민, BC, 구 LG카드는 정치자금기부센터에서 포인트 기부가 가능하다. 신한카드 포인트 기부는 신한아름인 사이트(www.arumin.co.kr)를 이용하면 된다.

휴대전화 가입자를 위한 모바일정치후원시스템(Wink)도 마련돼 있다. 이는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결제 시스템이다. 접속은 숫자 539와 무선인터넷키를 누르면 된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공제된다. 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지만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 후원이 불가능하다. 글 · 김지영 기자



동아DB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성금 목표액 1퍼센트를 달성할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는 노인, 결식아동, 미성년 범죄자, 장애인, 국제결혼 이주 여성,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자신의 기부금이 쓰이길 바라는 지역 및 분야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홈페이지(chest.or.kr)나 전화(02-6262-3000)를 통해 정기 기부나 일시 기부를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결제 외에 포인트 기부도 가능하다. KB카드, BC카드, 신한카드, S-oil 보너스 카드 포인트 기부가 가능하고, 통신회사 SKT의 OK캐시백 및 레인보우 포인트도 현금처럼 기부할 수 있다.

문화상품권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 문화상품권 홈페이지 컬쳐랜드(www.cultureland.c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결제 항목에서 '기부하기'를 선택하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을 돕는 유니세프(unicef.or.kr) 후원금을 낼 수 있다. 문화상품권 사용 후 남은 잔액을 기부해도 된다.

대형 마트에서 덤으로 받은 증정상품이나 넉넉하게 차린 제사음식 등을 이웃과 나누는 것도 좋은 기부 방법이다. 물량이 많으면 전국푸드뱅크(www.foodbank1377.org)에 접속해 기부회원으로 가입한 뒤 전화(02-713-1377)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 내 기부를 원할 경우 1688-1377로 전화하면 가까운 지역의 푸드뱅크로 연결된다.

이밖에 유니세프 등을 통해 유산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기증하는 방법도 있으며, 고인(故人)의 이름으로 조의금을 기부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다. 금전이나 물품 외에 튼튼한 체력이나 재능을 기부하는 자원봉사활동도 이웃에게 큰 힘이 된다. G

글 · 구미화 객원기자

국내 기부 활동 관련 기관

굿네이버스	www.goodneighbors.kr	02-6717-4000
굿피플	www.goodpeople.or.kr	02-783-2212~3
세이브더칠드런	www.sc.or.kr	02-6900-4411~3
유니세프	www.unicef.or.kr	080-733-7979
푸드뱅크	www.foodbank1377.org	1688-1377
다일복지재단	www.dail.org	02-2212-8004
어린이재단	www.childfund.or.kr	1588-1940
월드비전	www.worldvision.or.kr	02-2078-7000 (안내 1번)



| 라오스 교과서 보급사업 현장 |

기부하고 세금 내고? 나눔 가로막는 벽

"기부 막는 걸림돌 없애주세요"

기부문화 확산은 개인이나 기업의 참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고, 기부금 모금단체들도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동아DB

직장인 김경호(32) 씨는 '기부' 이야기만 나오면 할 말이 많다.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 씨 어머니는 환갑을 맞아 잔치나 해외여행으로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뭔가 뜻깊은 일을 하고 싶다며 자식들이 준 돈과 그동안 모은 쌈짓돈을 탈탈 털어 2천만원을 한 해외구호단체에 기부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자기가 기부한 것처럼 마음이 뿌듯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괜히 손해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기관에 기부했으면 어머니가 김 씨의 부양가족으로 돼 있어 김 씨는 기부금 2천만원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김 씨 어머니가 기부한 곳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분류돼 있어 소득의 15퍼센트까지밖에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연봉 4천만원인 김 씨는 6백만원밖에 소득공제가 되지 않았다. 기부에도 차별이 있는 셈이다. 숫자는 많지 않겠지만 김 씨처럼 고액기부를 한 사람들로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행 법규로는 선의의 피해자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최영전 사무관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기부까지 똑같이 1백퍼센트 소득공제를 해주면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2006년 신고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의 99.7퍼센트가 기부금 총액이 소득의 15퍼센트를 넘지 않았다"며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20퍼센트로 상향된다"고 말했다.

2002년 2백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 15억원을 아주대에

기부해 장학재단을 설립한 황필상 수원교차로 회장은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국세청이 그의 기부를 '무상증여'로 간주해 1백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 기부 주식 수가 해당 기업 지분의 5퍼센트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고 60퍼센트까지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으로서는 주식의 공익법인 기부를 무한정 허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기업가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해 기업에 대한 실질 지배력은 유지한 채 편법 상속 및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항인 것은 분명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황 씨의 주장이다.

또한 부동산을 기부할 경우 공익단체가 기부받은 부동산을 팔려면 감독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따라서 공익단체는 기부자에게 아예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기부하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동산을 팔아 양도세를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어 기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부금을 한푼이라도 더 나눔사업에 써야 하는 기부단체들로서는 연말 소득공제 서류 발송은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대한적십자사만 해도 지난해 말 15만명의 기부자들에게 소득공제서류 우편발송비로 3천7백만원을 썼다. 이는 2천5백원짜리 도시락을 결식아동 1만5천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액수다.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기엔 비용과 절차가 부담스럽다. 손쉬운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부단체들의 기금관리도 투명해질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종교단체 기부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금 회피를 막으면서도 기부를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 입력도 포함하면 불필요한 발송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기부금 관리도 투명해진다.

정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은 기부금의 배분을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기부단체들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연정(33)씨는 3년 넘게 해오던 기부를 최근 중단했다. 기부하던 단체에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지출명세서 등을 통해 회계처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기부금이 어떤 곳에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히 알리지 않으니까 불신이 생긴다"고 말했다.



동아DB

5월2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 시민들이 기부한 동전으로 '사랑의 동전밭'이 만들어졌다.

시민사회단체 회계정보 제공 사이트인 한국가이드스타 박두준 사무국장은 "한국가이드스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7백55개 중에서 회계정보를 공시한 단체는 75개에 불과하다"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라도 회계정보를 자세히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부단체도 회계정보 공개 등 노력 기울여야

기부단체와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만 기대하지 말고 기부문화에 대한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아름다운재단이 발표한 '2007년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인 기부를 해온 기부자 수는 전체 기부자 중 16.6퍼센트에 그쳤다. 반면 비정기적으로 기부한다는 응답자는 80.4퍼센트였다. 기부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정기적인 기부의 방법과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자녀 등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나눔교육을 해달라'(35퍼센트) '의미 있는 기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28.5퍼센트)는 등의 답변이 많았다.

기부에 대한 기업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많은 신용카드사나 인터넷쇼핑몰에서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현재까지 자사 회원들이 축적한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기부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내 항공사들은 "카드사와의 관계, 다른 제휴항공사와의 관계 등 풀어야 할 부분들이 많아 아직 실행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G

글 · 최호열 기자

"돈 없어 운동 포기 안 하게…" 홍명보 장학금 전달식

"축구로 받은 사랑, 축구로 돌려 드립니다"

2002한일월드컵 4강 신화와 함께 기억되는 '캡틴' 홍명보 감독. 그라운드를 누비던 '영원한 리베로' 홍 감독은 이제 더 이상 '캡틴'은 아니지만 기부천사가 되어 곳곳에서 많은 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고 있다.

5월 14일 낮 경기 과천시 과천동의 바비큐식당 '옛골토성'의 안마당. 아름드리 나무들이 드리운 푸른 숲 그늘 아래 초중고 학생, 학부모 등 1백50여 명이 모여 홍명보장학재단 장학생 오찬 행사를 가졌다. 큰 형들 사이에서 유난히 어린 티가 물씬 나는 초등학생부터 여드름 더덕더덕한 중고생까지, 조금은 수줍은 듯도 했지만 아이들 표정에는 자부심이 또렷했다.

1백30여 명에 이르는 역대 '홍명보 장학생' 중에는 프로축구단 FC서울의 이상엽(1회 장학생), 성남 일화의 신영철(2회 장학생), U-20(20세 이하) 청소년대표 문기한(5회 장학생) 선수 등 쟁쟁한 축구선배들이 있기 때문이다.

홍명보 U-20 청소년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사장으로 있는 홍명보장학재단은 1997년 출범 이후 가정형편이 어려운 축구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특히 2002년부터는 홍 감독이 월드컵 4강 포상금과 각종 후원금, 광고 출연료 등을 털어 장학사업 규모를 키우면서 매년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30명가량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전달식을 하고, 한번 장학생에 선발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년 3차례 축구화 등 축구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홍 감독은 이날 오찬 연설에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 가운데서도 우리 재단 장학생 출신이 있다"고 소개하며 "학업과 축구를 병행하라. 그래야 사회에 나가 쓸모 있는 인재가 된다"고 당부했다.

홍명보 감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정식 가입했다. 홍 감독은 지금까지 총 8억원을 기부해 현직 스포츠 스타로서는 최고 기부액을 기록했다.

이날 오찬 참석자 중 가장 '어린 장학생' 중 한 명은 서울 중구 신당동 광희초등학교 5학년 이화윤(11) 군이었다. 아버지 이형달(45·버스운전기사) 씨와 함께 오찬에 참석한 이 군은 햇볕에 그을린 가무잡잡한 얼굴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기쁘다"며 "홍명보 감독님과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수줍게 말했다.



축구 꿈나무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 유소년 축구 클리닉을 열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 군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인천시로 이사를 했다. 전학을 해야 하지만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 차로 한 시간 반 거리인 인천 집에서 서울의 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그나마 5학년이 되어서는 합숙소에 들어가 주말에만 집에 다녀온다.

오찬을 마친 홍 감독은 기자와 만나 "재능 있는 아이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한국 축구에도 큰 손실"이라며 "그런 아이들이 내 도움을 받아 다시 운동을 하고 자신감을 회복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특히 유소년들에 대한 지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성장도 빠르고 매일 뛰고 달리기 때문에 운동화가 빨리 닳아요. 가정형편이 어렵다면 한 켤레에 10여만원씩 하는 축구화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죠."

홍 감독이 기부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다. 그가 선수 시절 일본 J리그의 벨마레 히라쓰카로 이적하며 받은 이적금 5천만원을 바탕으로 홍명보장학재단을 만든 것이 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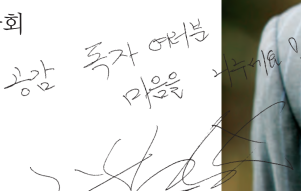
"나눔에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기부를 시작한 것은 그동안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사랑을 마음이든, 돈이든, 어떻게든 사회에 환원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 축구꿈나무를 위한 장학사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눔 활동은 장학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2003년부터는 매년 12월 축구스타들이 참여하는 자선 축구경기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백혈병소아암협회, 서울복지재단 등에 전달해 소아암 환아와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 있다.

"장학생들 중 기억에 남는 몇몇 학생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그만두려다 우리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자부심을 갖고 축구를 열심히 해 대학에 진학한 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재단의 장학금이 어린 학생의 인생을 바꾼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홍 감독은 4월 1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자선 축구 수익금 1억5천만원을 전달하면서 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으로 정식 가입했다. 홍 감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5년 2억원, 2006년 2억원, 2007년 2억원, 2008년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 1억5천만원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억원을 기부해 현직 스포츠 스타로서는 최고 기부액을 기록했다.



홍 감독이 가입한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지도자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1억원 이상 나눔에 참여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 공동모금회가 국내 고액 개인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었다.

현재 아너 소사이어티에는 최신원 SKC 회장, 남한봉 유닉스코리아 대표, 류시문 한맥도시개발 대표, 정석태 진성토건 대표, 우재혁 경북타일 대표,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박조신 아름방송 회장, 박순용 인천폐차사업소 회장 등이 공식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홍 감독은 "나눔에 있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원을 받는 처지에서는 당장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나눔이 물질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은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고맙게 느껴집니다."

오찬의 여운이 남은 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말하는 그는 더 이상 패기 넘치는 젊은 캡틴은 아니었다. 하지만 젊은 패기 이상의 넉넉함을 가진 마음 따뜻한 사람,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기부천사'의 향기를 짙게 풍겼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기부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믿음을 지닌 홍명보 감독은 스포츠계의 기부천사다.

이명박 대통령 재산출연추진위원장 송정호 변호사

"교육으로 가난 끊자" 장학재단 설립

17대 대선 직전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재산을 전부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을까. 송정호 변호사를 만나 궁금증을 풀어봤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송정호 대통령재산출연추진위원회(가칭) 위원장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구절처럼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뜻이자 대통령의 뜻"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대중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송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1월 말쯤 대통령께서 저에게 재산헌납 일을 책임져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류우익 서울대 교수, 이재후 김&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소설가 박범신,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 기업인 김창대 씨 등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송 변호사는 "위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신념을 반영해 장학재단 설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 자신이 주위의 도움으로 학업을 계속한 경험이 있는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 월급 전액을 환경미화원 및 소방대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는 등 일찍부터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집 한 채 남기고 모두 출연… 새달 출범

송 변호사는 재단 명칭을 이 대통령의 모친(1964년 작고) 이름을 딴 '태원 장학재단'으로 정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평소 "가난하지만 바르게 살도록 가르침을 주셨다"며 모친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아왔기 때문이다.

"재단의 성격과 명칭 모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출연자인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죠."

송 변호사는 조속히 장학재단 법인 정관을 완성하고, 재산 출연 방법과 절차 등을 마무리해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면 즉시 법인이 설립되고, 장학재단이 출범하게 된다.

"부동산 자체를 출연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해 현금화할 것인지를 놓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 부동산을 매각하면 제값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세금 문제 등이 있어 재산환원의 뜻이 바래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를 출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 재산을 출연해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 대통령의 재산은 퇴임 후 거주할 자택을 제외하고 빌딩 3채, 주식, 부동산 등 3백억 원 안팎에 달한다. 장학재단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출연재산으로만 출범할 예정이다. G

글 · 최호열 기자



조영철 기자

송정호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출연 준비를 총괄하고 있다.

KOREA.COM GO.KOREA.COM

힘내라 대한민국!

GO.KOREA.COM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추첨을 통해 대한민국 왕복항공권과 숙박권, DSLR카메라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 2009년 5월 6일 ~ 7월 6일 당첨자 발표 : 추후 공지 (GO.KOREA.COM내 게재)

내 앨범 속의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함께 했던 순간의 사진과 사연을 응모하세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찍었던 과거-현재 사진, 태극마크와 함께 응원했던 순간,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만났던 일 등 함께 했던 사진을 응모하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국내외 어느 곳이라도 전달해 드립니다!

- 응모분야(중복참여 가능) -

Event 1〉 내 앨범 속의 대통령 : 현직 대통령과 함께 찍었던 옛 사진 및 사연 응모 (1차 수상작 참고)
Event 2〉 내 앨범 속의 태극기 : 세계 속에서 태극기가 함께 했던 순간 사진 및 사연 응모
Event 3〉 자랑스러운 한국인 : 세계 속의 한국문화 및 한국상, 해외에서 자랑스러웠던 순간 사진 및 사연 응모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세요!

대한민국과 함께 했던 순간의 사진과 사연을 응모하세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찍었던 과거-현재 사진, 태극마크와 함께 응원했던 순간,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만났던 일 등 함께 했던 사진을 응모하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국내외 어느 곳이라도 전달해 드립니다!

희망의 비타민 후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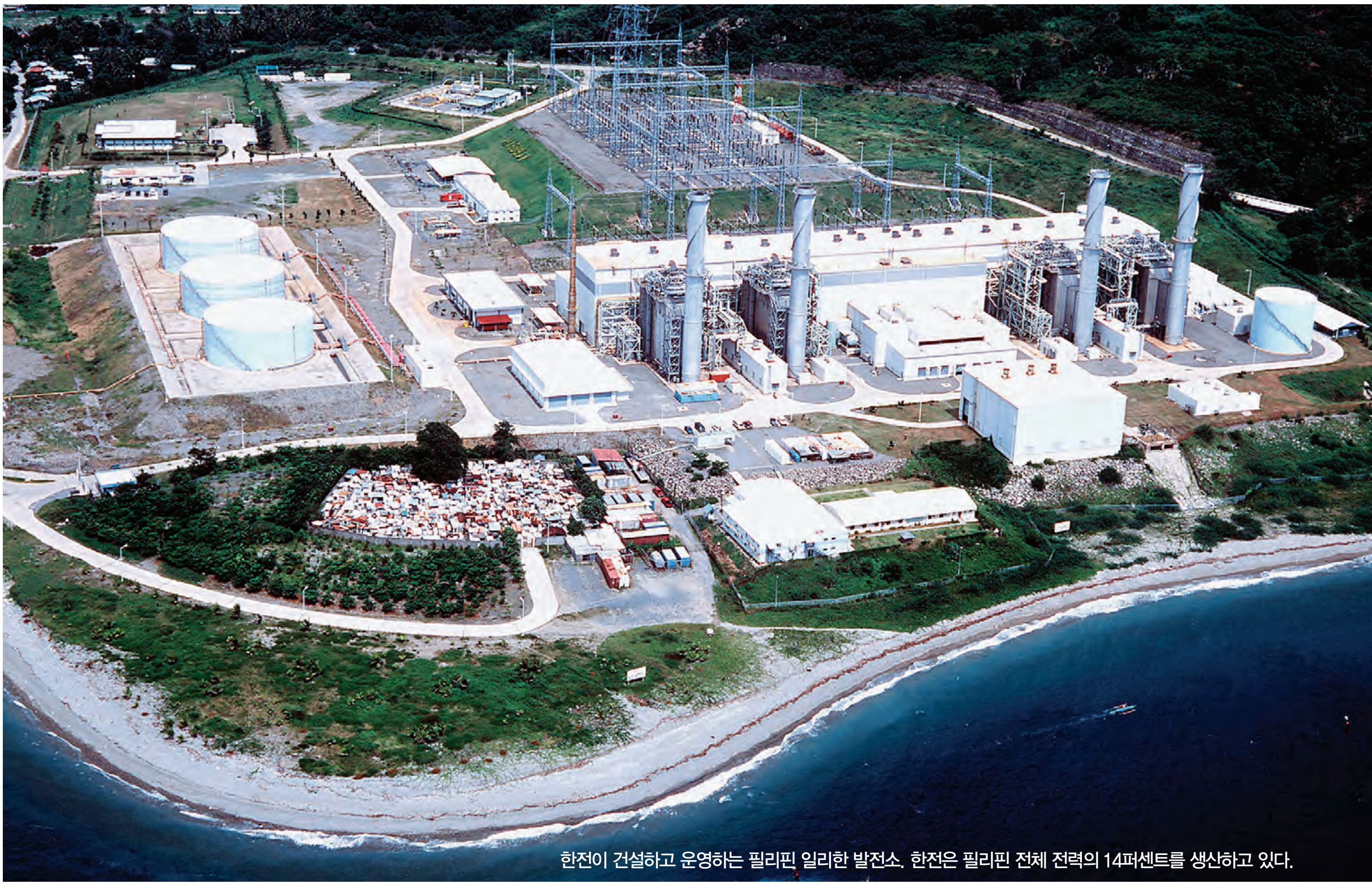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응원과 함께 세계 어린이를 위한 희망의 비타민을 후원하세요.

비타민A 결핍으로 전세계 1억 명 이상의 5세 미만 어린이가 실명과 홍역, 말라리아, 폐렴 등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따뜻한 희망 댓글은 한 개당 5개의 비타민이 후원되며, 비타민은 한 개당 20원의 후원효과가 있습니다.
4만원이면 1,500명의 어린이에게 6개월치 비타민 A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세계어린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희망 댓글을 모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합니다.

* 본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O.KOREA.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관 : KOREA.COM · 후원 : NEWDAILY arirang unicef



한전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필리핀 일리한 발전소. 한전은 필리핀 전체 전력의 14퍼센트를 생산하고 있다.

공기업 청렴도 평가 1위 한국전력공사

"1조4천억원 절감… 수출로 살길 찾겠다"

한국전력공사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하고 있다. 전 직원에게 혁신마인드를 고취하고, 신경영혁신기법을 통해 지난해 1조4천억원의 경비를 절감했다. 하지만 해외사업 수주와 미래성장동력 투자는 대폭 늘렸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KEPCO) 20층 TDR(Tear Down & Redesign)룸. 벽면을 가득 메운 '눈물 없인 혁신 없다!' '계량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낭비 제거! 부가가치 창출!' 등의 구호가 요즘 한전의 비장한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준다.

한기식 경영선진화실장은 "TDR은 문제를 손에 잡히는 수준까지 풀어헤쳐서(Tear Down)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고와 방식에 따라 경영시스템과 서비스를 재구성(Redesign)해 효율성을 높이는 신경영혁신기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일까, TDR팀의 이름부터 혁신적이다. 예를 들면 '발주 및 납품제도 개선을 통한 재고감축안'을 만들고 있는 팀은 '재고박살팀', '전기사용자 실명화를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연구하는 팀은 '명명백백팀'이다.

TDR룸은 지난해 8월 취임한 김쌍수 사장이 자산 규모 65조원의 거대 공기업 한전을 쇄신하겠다며 만든 '경영혁신의 산실'이다. 2만3백70여 명의 직원 중에서 선발한 정예요원 3백50명이 근무하고 있다.

TDR팀들은 지난해 문서 간소화, 콤팩트형 변전소 모델 개발, 변압기 교체기준 개선 등 시범과제 3건만으로 1천1백17억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올해는 1백36개 과제를 선정해 실행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쇄신 의지는 강력하다. 지난 3월, 2천4백20명 규모의 인력감축안을 통과시켰는가 하면 배전 및 판매조직과 송·변전조직으로 분리되어 있던 사업소를 지역별로 통합하고 본사 조직과 해외지사, 물류센터를 대폭 축소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능 중복으로 발생하는 낭비를 제거하고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혁신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식스 시그마 활동, 혁신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한 의식변화 프로그램인 ACT(Action & Change Training)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ACT교육은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목표의식을 전 직원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1박 3일 동안 진행하는데 1일은 무박으로 한계극복체험을 하도록 돼 있다.

한전은 이런 노력을 통해 지난해 1조4천억원의 비용을 절감,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4퍼센트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올해도 초긴축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추가적인 낭비요인 발굴과 업무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1조원의 추가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객만족도 10년 연속 최고 등급

줄일 것은 줄이지만 늘려야 할 것은 늘리는 게 경영혁신이다. 새로운 해외사업을 수주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할 역량을 다지기 위해 해외 및 기술조직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투자는 오히려 늘렸다. 지역별로 되어 있던 해외사업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하고, 원자력 수출을 위해 원자력 사업부문 인력을 보강했다.

또한 자원개발팀과 녹색성장팀을 본부장 직속으로 위상을 강화하는가 하면 특허팀과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 인공지능형 절전시스템)조직을 신설하는 등 제2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국내 전력시장은 2016년 이후 성장률이 1퍼센트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계에 달했다. 이에 한전은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필리핀은 이미 전체 전력공급의 14퍼센트를 한전이 책임지고 있다. 지난해 2월에도 필리핀 세부의 석탄화력발전소(2백메가와트) 건설 공사를 착공했다. 2011년 준공되면 25년간 한전이 운영한다.

지난해 7월엔 요르단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알 카트라나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을 수주했다. 요르단은



김쌍수 사장이 만든 TDR룸은 한전의 경영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형원전 도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올 3월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5억 달러 규모의 라빅 중유화력발전소(1천2백메가와트)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는 25억 달러 규모의 발하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을 수주했다. 에콰도르 정부와도 수력개발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풍력발전사업에도 뛰어들어 지난해 중국에서 간쑤(甘肅 · 49.5메가와트)성과 내몽고(2백79메가와트) 발전소사업을 따냈다.

한전은 해외 매출을 올해 5천81억원, 전체 매출의 1.6퍼센트 수준에서 2020년엔 약 18조원, 전체 매출의 22.5퍼센트 수준으로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고객중심 경영에 힘써온 결과 공기업 고객만족도에서 10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고 있다. 법인고객이 아닌 개인고객 대상 공기업 중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곳은 한전이 유일하다. 또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3백81개 공공기관 가운데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성과 덕분에 한전은 지금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까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G

글 · 최호열 기자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소한 것부터 줄여 국민에게 돌려줘야"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한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혁신전도사'라는 별칭이 따라다닐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혁신 전문가다. 그는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직급별 · 계층별로 마라톤 혁신 워크숍을 열어 자신의 경영철학을 전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9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진행한 워크숍은 11회에 걸쳐 3천1백62명이 참가했다.

이와는 별도로 10개 전력그룹사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과 강의에도 6회에 걸쳐 1천4백24명이 참가했다. 사장의 경영모토인 'Great Company'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실행력을 갖춘 인재 육성(Right People), 비부가가치 업무 제거와 고객가치 창출요소 강화(가치 창조), 고객중심의 서비스 실천으로 고객만족 구현(고객 만족), 혁신풍토 조성(강한 조직) 등 4박자가 어우러져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혁신의 총대를 멘 김 사장은 항상 강의 말미에 '가젤과 사자론'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의 혁신 마인드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다. 〈마시멜로 이야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자보다 느리게 달리면 잡아먹혀 죽을 운명에 처할 것을 아는 아프리카 초원의 가젤이건, 가젤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면 굶어 죽으리라는 것을 아는 사자건 상관없이, 아침에 눈뜨면 당신은 질주해야 한다'는 것.

한전을 발칵 뒤집은 '김쌍수식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한 그는 사장 취임 후 자신의 비서실부터 30퍼센트 감축했다. 최근에는 집무실 전등까지 절반 이상 소등하고 수시 점검할 정도다. 강도 높은 원가절감을 자신부터 행동에 옮기겠다는 의미다. 전사적 차원에서 '이삭줍기'라는 이름으로 사소한 비용부터 줄이고 아낀다. 그는 "작은 것을 줄인다고 얼마나 되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이면 큰 줄기가 되고 국민한테 되돌려줄 수가 있다. 이런 노력이 바로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공익성이다. 그래서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자전거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덕특구서 연구하고 집적화 단지서 만들고

'한국형 명품 자전거' 개발 박차

녹색 교통수단의 총아로 자전거가 각광받고 있다. 자전거에 대한 수요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자전거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생산기반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국이 자전거 열풍이다. 인근 공원에서 주부와 아이들이 타는 생활자전거는 물론 도심지역 도로를 따라 달리는 출퇴근용 자전거, 도시 외곽 국도를 시원스럽게 달리는 레저용 자전거에 이르기까지 자전거 인구가 부쩍 늘고 있다.

브랜드나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생활형 자전거는 가격대가 10만원 이하지만, 고급형 자전거는 1천만원대가 훌쩍 넘는 것도 있다.

이유 있는 자전거 가격 차이

견물생심이라 10만원대 자전거를 타다 내구성이나 기능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자전거를 접하게 되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 첨단소재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해 더 가볍고 편리한 기능을 갖춘 고급형 자전거가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전거는 탄소배출량이 없고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자동차 중심의 문화가 고에너지, 대기오염, 교통 혼잡을 유발해 2005년 기준으로 44조4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볼 때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만큼 훌륭한 것도 드물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양한 정책과 문화, 생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자전거 생활화와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자전거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 인프라 구축, 국산화, 고부가가치 자전거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마침 국내외 자전거 시장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어 정책의 성공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세계 자전거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억2천만 대(6백억 달러 · 2007년 기준)에 달하고 연평균 5.2퍼센트 이상의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자전거 시장은 2000년 1백만 대 수준에서 2005년 2백만 대로 크게 증가하는 등 2000년 이후 연평균 18퍼센트의 높은

국내 자전거 시장 규모 변화 예상

구분	국내인구수	보유대수	보급률	연간 시장 규모
2006년	4,808만	800만 대	16.6%	200만 대
2012년	4,808만	1,400만 대	30.0%	280만 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전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중국산 저가형 자전거에서부터 BMW, 크라이슬러, 구찌, 샤넬 등의 브랜드를 내세운 고급형에 이르기까지 최고 1백 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는 단순히 브랜드 차이만은 아니다.

초기 자전거산업의 중심지였던 서유럽 국가들은 인건비 상승 등 불리한 여건에도 최고급 제품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수작업 등에 의한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완성 자전거뿐 아니라 부품과 용품에서도 세계적인 명품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이탈리아의 '콜나고'는 자전거 프레임 가격만 8백여 만원을 호가한다.

초경량 고부가가치 자전거 개발

더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자전거 개발로 시장을 선점한 나라들도 있다. 대만의 경우 정부 주도로 대만자전거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고부가가치 자전거 개발 전략을 폈다. 그 결과 전 세계 고가자전거 시장의 80퍼센트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은 카본과 금속 등 부품분야 특허 등을 선점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벤치마킹 모델이 된 지 오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건비 등 원가부담에 따른 해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도입, 저가형 자전거 생산 치중 등으로 국내 산업기반이 약화되면서 해외 현지생산 제품이나 고급 브랜드 등 수입제품이 시장을 1백퍼센트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자전거 시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자전거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또한 성공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중국 OEM 방식의 저가형 자전거 보급에 치우친 국내 자전거산업을 R&D 투자 확대와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먼저 대덕특구가 보유한 원천기술과 첨단기술을 활용,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완성 자전거와 초경량 고부가가치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 관련 생산 인프라와 특화 기술을 보유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생산 집적화 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창원시청

경남 창원시가 도입한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시민들이 타고 있다.

자전거 시장·산업 주요 통계 비교

구분	인구 (만명)	자동차 보유 (만대)	자전거 보유 (만대)	자동차 보급률	자전거 보급률	자전거 교통 수단 분담률
한국	4,808	1,540	800	32.0%	16.6%	1.2%
독일	8,249	4,552	7,200	55.2%	87.3%	10%
일본	12,778	7,237	8,665	56.6%	67.8%	14%
네덜란드	1,627	490	1,600	30.1%	98.3%	27%

자료 출처 : OECD, 일본교통성, 통계청, 한국교통연구원(2006년)

이에 따라 전남 순천에서는 자전거 연관 벤처기업 11개사를 활용해 이미 개발된 마그네슘 소재를 활용한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경북 영천에는 영천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안에 경량자전거부품 집적화 단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전략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자전거 개발 보급 △카본복합 소재, 마그네슘 소재 등 초경량, 고강도 첨단소재 개발 △도난방지 장치, 투어맵 등을 장착한 지능형 자전거 개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부품기술 접목 △고감성 디자인 개발, 유명 브랜드와의 제휴 등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정부의 이 같은 의지에 힘입어 지난해 11월부터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자전거연구조합을 만들어 국산화 및 시장진입 방법 등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자전거 산업계의 R&D 투자 확대와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산 자전거의 수요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 수요 창출을 위해 표준화된 품질을 가진 한국형 공공자전거 보급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 현재 1만5천여 대가 보급된 국내 지자체 공공자전거를 2011년까지 6만5천여 대로 4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덕특구 R&D사업을 통해 한국형 공공자전거 개발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자전거 출퇴근 보조금 등과 연계해 국산자전거 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경남 창원시는 매달 15일 이상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의 업무용 자전거 구매를 통해서도 수요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안에 자전거도로 28킬로미터를 건설하고 안전표지판을 확대 설치했으며, 업무용 자전거 1천4백 대를 비치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자전거보급률을 30퍼센트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국내 자전거 시장 규모는 2006년 대비 40퍼센트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G

글 ·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문의 · 지식경제부 수송시스템산업과(02-2110-5658)



e하나로민원 홍보대사 박현빈이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해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다.

행정안전부 e하나로민원 홍보대사 가수 박현빈

민원처리? 아주 그냥 끝내줘요~

e하나로민원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정부형 서비스다. 행정·공공·금융기관들은 이제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굴도 샤방샤방, 노래도 샤방샤방, 그래서 대찬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아가고 있는 가수 박현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사랑해주셔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고 또 방송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언제 봐도 항상 기분 좋은 얼굴로 노래하고 있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죠.

오늘은 여러분께 제 노래처럼 기분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e하나로민원'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e하나로민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으로, 알면 알수록 유용한 신통방통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e하나로민원은 행정안전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하나로민원은 일종의 전자정부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덕분에 행정·공공·금융기관들은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의 구비서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정부가 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2년 1월입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본격화된 것은 2005년 말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05년 4천8백여 개의 민원 업무 중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3종류 이상 제출해야 하는 민원 업무가 전체의 57퍼센트인 2천7백여 개에 달했다고 하더군요. 2005년 말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1, 2단계 및 확대 구축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2008년 10월부터 e하나로민원을 확대하여 기존에 이용하던 42종의 구비서류 외에 수출입신고필증, 지적도 등 29종의 구비서류를 추가해 총 71종의 서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하나로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7개 공공기관과 14개 금융기관을 추가해 총 3백78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구비서류 준비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인 셈이죠.

> **혹시 까다롭지 않냐고요? 천만에요. 인터넷으로 간단한 동의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e하나로민원에 대한 소개 및 이용방법은 'e하나로민원 체험하기' 코너를 통해 미리 체험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체 구비서류의 37퍼센트를 금융권에서 요구한다는 점에서 e하나로민원을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행정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뿐인가요? e하나로민원 덕분에 여권 신청, 기초노령연금 신청, 전입가구 열람 등의 민원신청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가능해요.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저 역시 그 간단한 절차에 놀랐지 뭡니까?

구비서류 No, 신청서 한 장이면 OK!

사실 제가 처음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주민등록등(초)본이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병역관계서류 등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3종류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들르느라 힘도 들고 번거롭기 짝이 없었죠. 그런데 e하나로민원을 이용하면 이제는 그런 구비서류들은 한 장도 필요없더라고요.

그 덕분에 민원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대기하는 시간과 교통비는 물론이고, 구비서류의 발급 및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연간 1천억원 이상 절감된다고 하니, 정말 제 노랫말처럼 "아주 그냥 끝내주는" 서비스 아닌가요?

그렇다면 e하나로민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까다롭지 않냐고요? 천만에요. e하나로민원은 인터넷으로 간단한 동의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작성한 동의신청서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의 신청, 이의신청, 진정, 건의 등 전반적인 민원 사무에 적용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pr.share.go.kr)에 들어가서 'e하나로민원소개'를 클릭한 뒤 '민원종합안내'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와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둘째, 앞서 확인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미리 준비합니다.

셋째, 민원 사무를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민원은 민원처리 담당자가 e하나로민원을 통해 구비서류 정보를 확인한 뒤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없다면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에 다시 가보세요. 앞서 말한 e하나로민원에 대한 소개 및 이용방법은 물론 'e하나로민원 체험하기' 코너를 통해 미리 e하나로민원을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민원 신청을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비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지요. 전자민원 G4C 홈페이지(www.g4c.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는 e하나로민원을 통해 창구직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사전 동의하면 됩니다.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이처럼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환경문제 개선과 에너지 절약에 일조할 수 있도록 신청서 한 장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한 e하나로민원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 박현빈도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감시정에 오른 손영택 정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강진관 반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인천본부세관 감시관실 대원들이 선박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왼쪽은 강 반장이 감시 선박에 오르는 모습.

또 하나의 국경지킴이, 인천본부세관 감시관실 대원들

"바다 통한 밀수 한물 갔죠"

인천본부세관 감시관실 대원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위협 속에서도 매일 선박에 올라 수색활동을 펼친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총기 안전국'이라는 명성을 얻은 것도 '선제적 방어'를 펼치는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일, 인천항 연안부두 통선장을 출발한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 감시관실 소속 감시정 '인천 304호'(50톤급)가 두 줄기의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다를 가른다. 인천세관 감시관실 손영택 정장(감시2주무)을 비롯한 소속 대원 6명은 말없이 가스총과 이동용 사다리를 점검한다. 잠시 후 닥칠지도 모를 긴급 상황을 예감한 듯.

5분쯤 지났을까. 가스오일과 벤젠 등 화학제품을 실은 S사의 케미컬선(화학제품 운반선)이 시야에 들어오자 '기동'이 시작됐다.

"타타타닥."

감시정이 배 옆 부분에 닿자 대원들은 전광석화처럼 사다리를 올랐다. 헛디디면 시퍼런 바다. 신기하게도 그들의 발은 사다리에 착착 달라붙었다. 흡사 건물 유리창에 붙어 빌딩을 오르는 스파이더맨이 연상될 정도였다.

대원들이 가장 먼저 '침투'한 곳은 선장실. 강진광 반장이 '항해 메모(Voyage Memo)'와 '선원 명단(Crew List)', 선용품신고서 등 기초 서류를 점검했다. 강 반장 : "따로 신고할 물품 있나요?"

선장 : "노트북 정도 있습니다."

대원 : "총기는요? 창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선장 : "그런 것 없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대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선박 창고와 침실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밀수품이나 총기, 마약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침투.

창고를 확인하러 가는 짧은 시간에도 대원들의 시선은 선원들의 눈에 꽂혔다. 선원 중에는 미얀마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직감입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외국인 선원은 분명 숨겨야 할 뭔가가 있는 거죠." 강 반장이 귀띔한다. 대원들은 비좁은 기관실과 기름에 찌든 바닥, 연료탱크 등을 샅샅이 살폈다.

"좁은 기관실 안에 고철을 쌓아둔 곳이나 기름 묻은 바닥 밑에는 금괴 같은 밀수품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연료탱크를 이중으로 만들어놓은 곳도 의심스럽죠. 냄새가 새어

나가지 않게 한 거죠. 뜯어보면 인삼, 산삼 냄새가 올라오기도 해요. 뱀 밀수를 많이 한 배는 뱀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30분간의 수색이 끝나자 ‘상황 종료’. 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감시정에 올랐다.

2004년 30억원에 들여온 304호 감시정은 물을 뿜어 추진력을 얻는 워터제트 방식. 배 아래쪽에 스크루가 없어 최대 35노트의 빠른 속도로 어망을 타고 넘어갈 수도 있다. 인천세관 감시관실 직원들은 3척의 감시정과 동고동락하며 국경 최전방에서 ‘선제적 방어’를 펼치고 있다.

“정보 분석 담당자가 인천항에 들어올 선박의 입항예보(EDI) 정보를 분석합니다. 어디서 왔고,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지 분석하는 거죠. 만약 이때 밀수 전과가 있는 우범 선원이 탔다든지 선박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입항에 맞춰 ‘기동’ 합니다.” 손 정장의 설명이다.

국경 최전방에서 ‘선제적 방어’ 자부

감시정의 밀수 단속은 항만세관의 원초적 임무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원의 밀수나 선박과 선박을 이용한 ‘분선 밀수’가 급격히 줄면서 단속 업무보다는 입·출항을 돕거나 우범성 선박을 감시하는 활동의 비중이 커졌다고 한다.

그렇다고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고 있는데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협적인 순간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선박의 정보 분석과 잠복 감시도 일상이다. ‘신속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빠놓을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

“예전에는 감시정이 목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루미늄 재료로 만든 배에다가 30노트가 넘는 속력을 내죠. 첨단 장비가 갖춰지면서 불시에 종합상황실에서 지령이 내려와도 즉각 수색할 수 있게 됐죠.”

33년간 재직한 손 정장의 말대로 세관 업무도 첨단을 자랑한다. 인천종합상황실의 폐쇄회로TV 49대는 인천 내항, 국제항, 남항의 49개 접안시설을 24시간 감시한다. 종합상황실의 모니터에는 마치 방송국 조정실처럼 항만 곳곳의 상황이 비쳐지는데,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다.

인천세관 문미호 공보담당의 설명이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선원들이 외부 인원이나 차량과 연계해 숨겨 들여온 밀수품을 반출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는지 감시합니다. 24시간 모든 항만을 예의주시하죠. 밀수 정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세관 감시관실에 통보하고, 현장에서 밀수범을 검거합니다.”

2007년 5월에는 컨테이너 차량이 출구로 가지 않고 정박해 있던 화객선(화물과 여객을 함께 수송하는 배) 안으로 순식간에 진입하는 모습이 상황실 모니터에 걸리면서 그 자리에서 명품시계 밀수업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누군가 몰래 종이상자 위에 놓아둔 독일제 권총 1정과 실탄 1백 발을 발견해 압수한 적도 있다.

최근에는 종합상황실에서 감시관실로 ‘커튼 치기’가 우려되는 선박을 감시하라는 지령이 부쩍 늘었다. 커튼 치기는 커튼을 쳐서 가리는 것처럼, 컨테이너 문 앞쪽에는 정상적인 물품을 배치하고 뒤쪽에는 밀수품을 숨겨놓는 가장 대표적인 밀수 수법을 가리키는 은어다.

컨테이너 이동 X-레이 검색 차량도 감시 업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첨단 장비다. 10억원에 달하는 이 장비는 컨테이너 내부를 관찰하는데, 검색 차량 모니터에 독특한 형체가 보이거나 물건 안에 또 다른 물건이 들어 있는 것이 감지되면 즉시 해당 컨테이너를 집중 수색한다.

최근 조수기(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기기) 수입업자가 물탱크 안에 비닐 팩으로 압축한 고추 28억원어치를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것도 기둥 모양의 비닐팩이 X-레이 검색 차량에 고스란히 찍혔기 때문이다.

이처럼 요즘 밀수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사람이 직접 물건을 갖고 개별 통관을 시도하면 여지없이 검색대에서 적발되기 때문이다.

현재 해상기동을 하는 감시관실 직원은 42명(전체 5백4명). 모두 해양수산직으로 2개조로 나뉘어 24시간 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을 예의주시한다. 그렇다고 모두 해상기동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육상초소에서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해양대, 수산대 등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 대거 이 업무에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3주간 신규자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된다.

“이 일은 자부심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최전선에서 밀수와 싸운다는 자부심이죠. 요즘은 6월 1~2일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문에 긴장감이 더합니다. 우리가 최전선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나라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손 정장의 자부심은 단속 실적으로도 알 수 있다. 지난 한 해 인천세관이 적발한 밀수 단속 건수는 8백62건, 금액으로는 1조7천4백49억원에 달한다. G

글 · 배수강 주간동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인천본부세관 압수물품 창고에 보관된 압수물품.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이 5월 20일 개원했다.

한 그루 나무로 다시 살아나는 生

국내 첫 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 개장

산림청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목장림 모델을 개발해 5월 20일 첫 국유 수목장림을 개원했다. 경기 양평군에 조성된 수목장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 말은 한 번이라도 장례를 치러본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상 묘를 잘 써야 후손이 번성한다'는 믿음이 거의 신앙 수준에 가까울 정도다. '내 조상 묘를 더 좋은 곳에 쓰겠다'는 후손들의 욕망은 끝이 없어 이른바 전국 방방곡곡 경치 좋고 전망 좋은 산 중턱에는 묘지들로 생채기가 난 지 오래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고 했지만, 실제로는이름 대신 묘지만 남겨 금수강산을 훼손한 경우가 더 많았다.

정부는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과 산림훼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7년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 고인의 유골을 화장한 뒤 골분을 나무 밑에 묻는 장묘방식인 수목장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수목장림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20억원을 들여 수도권에서 가까운 경기 양평군의 국유림 10헥타아르(ha)에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추진해 5월 20일 개원했다.

국민 공모를 통해 최종 확정된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은 '사후 세계를 뜻하는 하늘나라의 숲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공원'이라는 의미의 '하늘숲추모원'으로 결정됐다.

수목장림 운영은 추모목 1그루에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에 있는 고인을 함께 안치하는 '가족목'과 불특정 다수의 고인을 함께 안장하는 '공동목'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사용 기간은 15년마다 유족과의 재계약을 통해 나무의 생육상태 등을 고려해 최장 60년까지 3회에 걸쳐 연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목장림 사용료는 가족목의 경우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최고 연간 2만원이고, 공동목은 고인 한 분을 기준으로 연간 최고 4천원이다. 관리비는 고인 한 분에 연간 4만5천원을 원칙으로 15년치를 선납해야 한다. 다만 추모목의 위치와 형태, 종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최장 60년… 추모목 종류 따라 관리비 달라

국유 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은 5월 20일 개장 이후부터 일반인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모목의 종류와 위치, 형태 등을 확인한 뒤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산림청은 권했다.

하늘숲추모원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나 산림휴양문화 포털사이트 숲에On(www.forest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G

글 · 구자홍 기자


4대강
살리기
제7화
글 이연수 그림 이호
아이고, 안 와도 된다는데 굳이….
어머나!
전기세 아끼신다고 형광등도 잘 안 켜시는 분이…. 어머님, 이거 전기세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최신형 전기레인지
괜찮아.
?
아, 괜찮대두.
저기서 다 전기가 나온다는구나. 저기 보에서도, 저기 태양광발전시설에서도.
군에서 홍수 날 때마다 쓰레기 쌓이던 자리를 치우더니 저렇게 해놨어. 덕분에 이 동네 사람들 다 전기를 아주 헐값에 쓰지.
싸기만 한 게 아니라 깨끗한 전기로군요.
그러게요.

"하고 싶은 일 계속 하면 기회는 옵니다"

스티키 몬스터 랩 아트디렉터 부창조 씨

애니메이션,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재미와 생각할 거리를 주는 디자이너 부창조. 그의 작품은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이름만큼이나 창조적인 미술가 부창조를 만났다.



정경택 기자

어릴 적 극장 간판을 그렸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그림을 좋아하게 됐다는 부창조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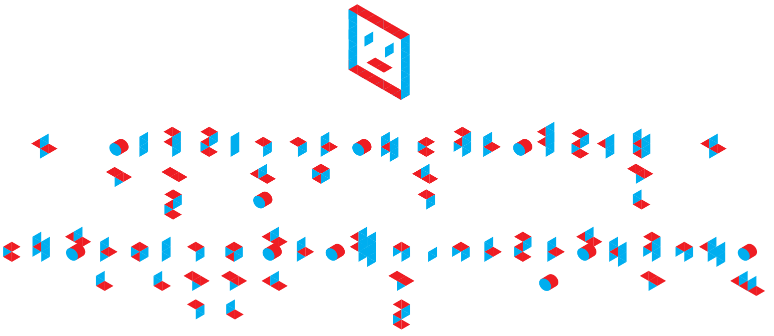
초록 잎이 싱그러운 서울시립미술관 야외에서는 6월 14일까지 '미술관습격사건'이라는 흥미로운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게임, 만화 등 비주류의 이야기와 캐릭터를 소재로 마니아다운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들이 미술관으로 상징되는 고급예술과 소통하는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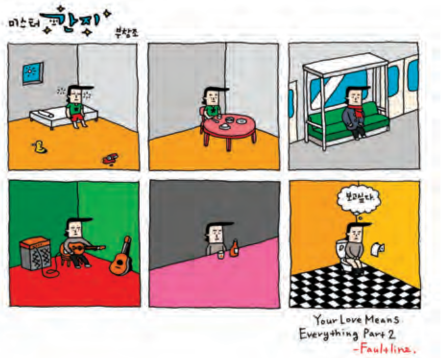
미술관 마당에는 'THE MONSTERS SECRET BOX'라고 씌어 있는 정체불명의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다. '뭘까' 궁금해하며 옆으로 돌아 안으로 들어가면 수십 마리의 '괴물들'이 있다. 디자인팀 '스티키 몬스터 랩(Sticky Monster Lab)'의 애니메이션, 피겨, 그래픽 작품들이다. 무섭기보다는 귀여운 몬스터들은 네모, 세모, 동, 파자마, 부 등 저마다 색다른 이름과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팔이 없는 몬스터 '부'는 스티키 몬스터 랩의 아트디렉터 부창조(30·夫昶朝) 자신의 캐릭터다. 그는 "누구나 한두 가지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괴물에 투영한 것"이라고 작품을 설명한다.

그는 예술가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을 가졌다. 성씨인 '부(夫)'는 한자로 '밝은 아침'이라는 뜻이지만, 이름자를 한글로만 보면 예술작품 '창조'가 먼저 떠오른다. 그는 창조의 부담을 느낀다며 웃는다. 그의 이름엔 극장 간판을 그렸던 아버지의 은근한 기대가 반영됐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다고 한다. 만화를 그리고, CD 재킷을 모으고, 로고 글씨를 만들며 놀았다.

"제품 한 구석에 'designed by 누구' 하고 이름이 나오는 게 멋져 보였어요. '나도 포스터나 음반을 만들 수 있겠구





부창조 씨가 그린 음악사이트 멜론의 온라인 카툰

나' 하는 생각에 시각디자인과를 선택했죠."

단국대 시각디자인과 재학 시절 그는 한글 디자인에 흠뻑 빠졌다. 학내 한글 디자인 동아리 '집현전'을 만들고, 대학생 연합 동아리 '한울' 그리고 충무로 영상센터인 '활력연구소'에서 활동하는 동안 한글 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대중과 소통하는, 공공문화 기여하는 디자인 지향

"문자는 읽을 수 있는 이미지예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림보다 더 강력합니다. 문자를 이해해야 다른 이미지와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에게도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그의 그래픽 작품에선 그림과 글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한글의 조형적인 특징을 활용해 만든 캐릭터와 일러스트는 깔끔하면서도 보는 재미가 있다. 그의 타이포그래피는 2000년과 2001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한글 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2002년에는 디자인정글 주최 '추천 타이포' 상을 받았다.

어릴 적에 건담 프라모델을 가지고 놀았던 그는 아트 토이와 피겨(figure · 플라스틱 모형의 일종)에도 관심이 많다. 2008년 델리토이즈의 'Ouip Loves Artists'와 '뉴욕 할로윈 커스텀 토이쇼'에 아트 토이 계열의 작품을 냈고, 올해는 '도쿄 인터내셔널 애니메 페어'에 참가했다.

또 그의 몬스터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두 편의 디지털 영화도 만들었다. 2007년 레스페스트 디지털 영화제에서 상영한 나이키 '와플슈즈' 탄생 이야기인 'The Runners'는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크고 작은 단체전 참여만이 아니라 2008년에는 스티키 몬스터 랩의 첫 번째 전시회를, 올 2월에는 첫 개인전을 열었다. '플러스마이너스'라는 제목의 개인전에서는 부창조만의 스타일이 느껴지는 실크스크린 작품과 석판화를 선보였다.

그의 작품은 상당히 상징적이다. 선과 색은 단순하지만 시선을 잡아끌면서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잡지 일러스트, 만화 연재, 휴대전화 기본 스킨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피겨와 애니메이션 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대중과 소통하는 디자인, 그러면서도 상업적인 것보다 공공문화에 기여하는 작업을 지향한다.

작품 활동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즐거움과 가정을 꾸리는 생활인으로서의 어려움이 충돌할 때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디자인은 아직 미개척 분야가 많은데, 젊은 친구들이 몇 번 시도하다 포기하고 마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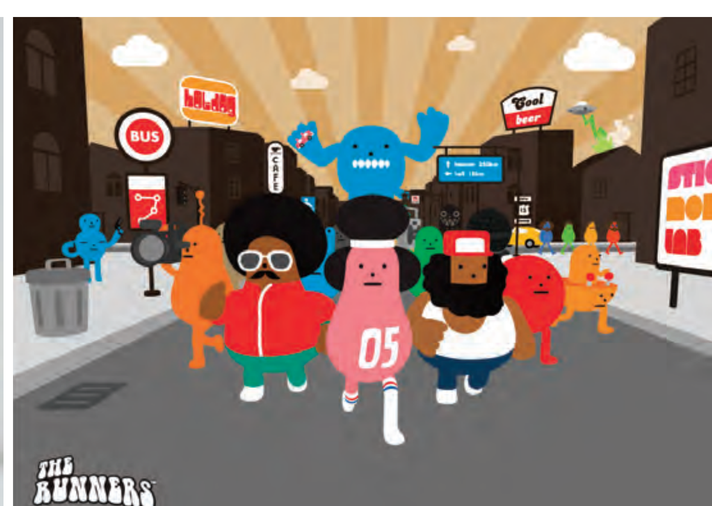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다 보면 기회도 오고 가치도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디자인은 아직 미개척 분야가 많은데, 젊은 친구들이 몇 번 시도하다 포기하고 마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선진국 시장이 넓다지만 그것도 누군가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과장되게 포장하지도, 허황한 공상에 빠지지도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가 독특한 이름처럼 대한민국 디자인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낼 것을 기대해본다. G

글 · 이혜련 객원기자

블로그 blog.naver.com/instantboy
스티키 몬스터 랩 스튜디오 사이트 www.stickymonsterlab.com





서울시립미술관에 전시됐던 'THE MONSTERS SECRET BOX'의 몬스터들(왼쪽). 스티키 몬스터 랩의 애니메이션 'The Runners'.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사무국 최보영 씨

"인턴십으로 국제기구 공략, 제 꿈 이뤘어요"



최보영 씨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려면 외국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독일 본에 위치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사무국에는 홍일점 한국인 직원이 있다. 5월 1일부터 근무 중인 최보영(25) 씨다. IPC는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주관하고, 국가별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관리하는 국제기구.

최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IPC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했고, 최근 정직원이 됐다. 그는 IPC뿐 아니라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일하는 유일한 한국인 정직원이다.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 스포츠기구에 1백7명의 한국인 임원이 진출했지만 현장을 책임지는 인력은 전무했던 터라 그의 진출은 더욱 의미가 깊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오래도록 활동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히는 최 씨는 "유일한 아시아 직원으로서, 또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사회체육학과를 다닐 때부터 국제기구에서 일하기를 꿈꿨던 최 씨는 대한장애인골프협회 국제연락담당관을 시작으로 2007년 IPC 서울총회 통역, 의전업무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제담당으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체육인재육성재단이 '국제기구 파견 지원사업'을 발표했고, 대한장애인협회가 그를 IPC 사무국 인턴으로 추천했다. 까다로운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터뷰, 3차 IPC와의 직접 영어 인터뷰를 거쳐 인턴 선발이 확정됐다. 특유의 적극성과 친화력을 발휘한 덕분에 낯선 독일에서의 적응도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고 한다.

대학 시절부터 인턴하며 경험 쌓아

"유럽인이 대부분이지만, 동양인이라고 차별당한 기억은 없어요. 열심히 배우는 자세를 도리어 기특하게 여긴 건지 더 잘해주던데요."

최 씨 특유의 긍정적 마인드는 동료들을 자기편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대표적인 예가 '라면 파티'. 동료들에게 한국 라면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라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끓일 큰 솥을 찾지 못한 그는 작은 냄비로 한 그릇, 한 그릇씩 라면을 끓여냈다. 그렇게 총 23그릇의 라면을 대접한 최 씨의 정성에 감동한 동료들은 매워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도 국물까지 싹 마시는 걸로 보답했다고.

'신입사원' 인 그의 월급은 1천7백50유로(약 3백만원). 초봉 치고는 많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금을 40퍼센트 가까이 떼고 나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도 꿈을 이뤄가는 중이라 행복하기만 하다고. 그에게 국제기구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융합하려 노력해야 해요. 어학실력과 실무능력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더해 열린 사고와 긍정적인 마인드, 자신감을 갖추세요." G

글 · 정지연 기자



상상하라,
새로운 대한민국!

물부족 • 물오염 • 물난리 없는 내일을 위해 4대강 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14조 원 투입, 일자리 19만 개 창출!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4대강 살리기!
이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물의 가치가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강변, 맑은 물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하버드대생 72년 추적 연구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과 인간관계가 행복의 열쇠

미국 시사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 최근호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미국 하버드의대 정신과 교수가 하버드대 출신 2백68명의 일생을 추적한 결과가 바로 그것.
이 결과에 따르면 행복하게 늙어가는 데 필요한 요소가 7가지라고 하는데….

#1 그는 하버드대의 수재였다. 아버지는 부유한 의사였으며, 어머니는 예술에 조예가 깊었다.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었고, 판단력이 뛰어났다. 이상도 높았고 건강했다. 그러나 31세에 부모와 세상에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돌연 잠적하더니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다. '전쟁 영웅이었고 평화운동가였다'는 부음 기사가 나갔다(141번 사례).

#2 활발하던 한 학생은 결혼 후 세 아이를 낳고 이혼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닫고 동성애 인권운동가가 됐다. 삶에 더 남은 것이 없다며 술에 빠져 살다가 64세에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47번 사례).

1937년 미국 하버드대 남학생 2백68명이 한 연구를 위해 선발됐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 입학한 수재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야심만만하고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이들이었다. 후에 제35대 미국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 워싱턴포스트 편집인으로서 닉슨의 워터게이트사건 보도를 총괄 지휘했던 벤 브래들리도 끼어 있었다.

당시 2학년생으로 전도유망했던 하버드생들의 일생을 72년에 걸쳐 추적한 결과가 지난 5월 12일 미국 시사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 6월호에 공개됐다. 연구는 과연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이 있는지, '잘 사는 삶'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인간을 행복으로 이끄는 열쇠를 찾아보기 위한 여정이기도 했다. 그래서 〈애틀랜틱 먼슬리〉는 기사 제목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What Makes Us Happy)'라고 붙였다.

1967년부터 이 연구를 주도해온 하버드의대 정신과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결론지었다.

연구 결과 47세 무렵까지 형성돼 있는 인간관계가 이후 생애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성공을 이루기도 했다. 연구 대상자의 약 3분의 1은 한때 정신질환도 겪었다. "하버드 엘리트라는 껍데기 아래엔 고통 받는 심장이 있었다"고 잡지는 표현했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데 필요한 요소는 7가지로 추



연합

'하버드대 2학년생 2백68명 생애 연구'는 1937년 당시 하버드의대 교수 알리 복이 시동을 걸었다. 사진은 하버드대 졸업식 장면.

려졌다.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가 첫째였고, 다음으로 교육, 안정적 결혼, 금연, 금주, 운동, 적당한 체중이 필요했다.

베일런트 교수는 "어떠한 데이터로도 밝혀낼 수 없는 극적인 주파수를 발산하는 것이 삶"이라고 말했다. 연구를 진행하며 그가 얻은 '삶'에 대한 결론을 묻자 "삶은 과학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숫자로 말하기엔 너무나 아름답고, 학술지에만 실리기에는 영원한 것"이라고 답했다.

특정 개인의 역사를 장기적으로 추적한 '종적(縱的) 연구'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하버드대 2학년생 2백68명 생애 연구'는 1937년 당시 하버드의대 교수 알리 복이 시동을 걸었다.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백화점 재벌 W. T. 그랜트의 이름을 따 '그랜트 연구'라고도 불린다.

50대 때 3분의 1 정신질환… 어릴 적 성격 영향력 줄어

종적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자금과 연구진이 동원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수십 년간 돈을 댈 인물이나 기관도 극히 드물고, 치밀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준 높은 연구진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하버드생 연구는 더욱 의미를 발한다고 〈애틀랜틱 먼슬리〉는 평가했다. 심리학과 의학 등 인간 연구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연구방법론의 변화가 수십 년간의 자료에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이다.

연구는 '잘 사는 삶에 일정한 공식이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했다. 연구진에는 하버드대 생리학, 약학, 인류학, 심리학 분야의 최고 두뇌들이 동원됐다. 이들은 2백68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체크했다. 어릴 때 침대에 오줌을 쌌던 기억에서부터 이성에 눈뜬 시기까지, 개인적인 체험과 심리상태를 치밀하게 자료화했다. 케네디 대통령의 파일은 그가 사망한 후 기밀로 분류돼 2040년까지는 공개가 금지됐다.

2백68명 대상자 중 절반 정도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남은 이들도 80대, 90대에 이르렀다. 베일런트 교수는 대상자들의 행적이 담긴 파일을 소개하며 "기쁨과 비탄은 섬세하게 직조(織造)돼 있다"는 윌리엄 블레이크(1757~1827)의 시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인간의 삶에 닥치는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후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베일런트 교수 자신도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쳐 결국 두 번째 부인과 재결합한 남다른 길을 걸어왔다. 저명한 고고학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권총으로 자살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감추려고 애썼다. 이번 연구는 베일런트 교수 자신의 인생 여정 탐구이기도 했다.



하버드생들의 일생을 72년에 걸쳐 추적한 결과가 5월 12일 미국 시사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 6월호에 공개됐다.

최고 엘리트답게 하버드생들의 출발은 상쾌했다.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사람이 4명이었고 대통령도 나왔다. 유명한 소설가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 시작 후 10년이 지난 1948년 즈음부터 20명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호소했다.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은 점점 늘었다. 50세 무렵엔 약 3분의 1이 한때 정신질환을 앓았다.

행복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데 필요한 '행복 요소' 7가지 가운데 50세에 5, 6개를 갖춘 1백6명 중 절반이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 '불행하고 아픈' 이들은 7.5퍼센트에 그쳤다. 반면 50세에 3개 이하를 갖춘 이들 중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3개 이하의 요소를 갖춘 사람은 그 이상을 갖춘 사람보다 8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3배 높았다.

50세 때 콜레스테롤 수치는 장수(長壽)와 무관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한 시기가 있고, 무시해야 할 시기가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어릴 적 성격도 장기적으로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수줍음을 타던 어린이가 청년기에는 고전하더라도 70세에는 외향적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다. 대학교 때의 꾸준한 운동은 그 후 삶의 신체적 건강보다는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연구 결과 47세 무렵까지 형성돼 있는 인간관계가 이후 생애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성공을 이루기도 했다.

성공적인 노후로 이끄는 열쇠는 지성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 적성, 즉 인간관계였다. 형제·자매 관계도 중요하다. 65세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의 93퍼센트가 이전에 형제·자매와 원만하게 지낸 사람들이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는 5월 12일자 칼럼에서 "이번 연구는 대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상상력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소설 같은 삶이 현실에도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브룩스도 베일런트 교수의 결론에 동감했다. "과학의 잣대도 숨을 죽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삶은 미묘하고 복잡한 것이다." G

글 · 신정선 조선일보 국제부 기자



일러스트 · 남동윤

취약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등 3천3백명에 여행비 지원

마음의 짐 내려두고 복지관광 떠나세요

여행은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휴식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여건이 안 돼 여행을 꿈꾸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정부 도움으로 여행의 단꿈을 꿀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신체적, 경제적인 여건으로 여행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국내 관광비용을 지원하는 '복지관광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한부모가정 또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만으로 구성된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들이다. 지원 인원 규모는 3천3백여 명이다.

'복지관광' 희망자들은 5월 20~25일 전국의 복지관(사회, 노인, 장애인 등)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에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단, 차상위계층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들만 가능하다. 노인은 1945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모든 장애유형의 1,2급 장애인과 3급의 일부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가 해당된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는 귀화확인서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한 합법 체류자가 대상이다.

여행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5만원. 여행경비가 지원금보다 많이 든다면, 나머지 경비를 자비로 부담하여 국내 어디든 여행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신청하려면 가족 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이전에 복지관광을 다녀온 사람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행 시기는 6월 11일~11월 30일 사이. 여행성수기(7월 17일~8월 16일)는 제외된다.

복지관광 여행 일정은 여행 신청을 받는 복지관 등에서 여행사와 협의해 정한다. 장애인이나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해당 복지관은 도우미나 의료진을 여행에 동반할 수 있다. 복지관 등이 복지관광 희망자들의 신청서를 모아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하면 결과는 5월 29일 발표된다. 2005년부터 지속돼온 이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1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김혜수 사무관은 "지난해까지는 일정한 여행상품을 정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기관별로 복지여행 희망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여행상품을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참조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www.koreatravel.or.kr)
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국민관광상품권국 02-757-7485, 7488

쓰레기 소각열을 산업 에너지로… 탄소 저감 + 재정수입

왜가리가 돌아오는 청정도시 천안

소각로 폐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제도, 천안천과 원성천 복원….
충남 천안시의 녹색성장 발길이 재빠르다. 중부권 대표 청정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천안의 노력을 살펴본다.

충남 천안시 서북쪽, 생활쓰레기를 실은 화물차들이 부지런히 도로를 달린다. 도심을 벗어나 교외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향하는 차들이다. 천안에서 하루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6백 톤. 이 가운데 3백여 톤이 재활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이곳에서 소각된다.

하지만 천안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의 ‘여정’은 이곳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저 태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섭씨 1천2백도를 웃도는 소각로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증기로 변한다. 이후 소각로에서 인근 공장까지 이어진 배관을 타고 이동해 해당 공장의 기계를 돌리는 산업 에너지로 재탄생한다. 이 사업을 통해 천안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억원의 재정 수입을 올렸고, 탄소 저감이라는 환경적 효과까지 얻고 있다.

천안시 김동익 환경정책팀장은 “소각로 폐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사업은 경제적 이득 외에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만8천여 톤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이를 테마사업으로 삼고 앞으로 시설을 늘릴 예정이다.

또한 천안시는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각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있다. 가정이 스스로 에너지 절약 목표치를 정하고, 그 절약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전년보다 전기 사용량을 15퍼센트 이상 줄인 가정에는 1등급의 마일리지를 주고, 10~15퍼센트 절감한 가정에는 2등급, 5~10퍼센트 절감한 가정에는 3등급의 마일리지를 준다. 쌓인 마일리지는 재래시장 상품권 등으로 바뀌어 각 가정으로 돌아간다. 이밖에 시민단체인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 손잡고 ‘기후변화 환경해설사’ 양성 교육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 지도사를 육성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2013년까지 온실가스 5퍼센트 줄인다

또한 도심을 가로지르는 천안천과 원성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생태하천이 복원되면 도심에 녹지공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천안시는 지난 4월 환경부 지정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천안시는 2013년까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5퍼센트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천안시 환경위생과 김영철 과장은 “두꺼운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원성천을 복원하니 도심으로 왜가리가 돌아왔다”며 “중부권을 대표하는 청정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G

글 ·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천안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원성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월 1회 5개 식품 자유 선택… 밥상나눔의 진화

"푸드마켓에서 행복 담아가세요"

올해 전국 시도에 국가가 운영하는 푸드마켓 45개가 신설된다. 국영 푸드마켓은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월 1회, 5개 식품을 무료로 골라갈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지난 4월 24일 국영 푸드마켓 1호점이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문을 열었다.

"일반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은 거의 다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골라서 가져갈 수 있어서인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10여 명 정도지만 1천여 명의 이용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알려주고 있으니 머잖아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4월 24일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문을 연 '행복나눔 무지개 푸드마켓(이하 푸드마켓)' 1호점의 이미화 복지관리사는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푸드마켓은 경기침체로 결식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설치 중인 국영 푸드마켓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국비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45개소의 국영 푸드마켓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에는 현재 25개소의 푸드마켓이 설치돼 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푸드마켓 1호점이 개점한 날 대전시 동구 대동에서는 2호점도 함께 문을 열었다.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식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푸드마켓은 물품을 무료로 공급하고 이용대상자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일반 마켓과는 다르다.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푸드마켓이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 중에서 푸드마켓 이용자를 선정한다. 푸드마켓당 약 1천명 정도를 이용자로 선정한다. 이용자는 푸드마켓 이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월 1회, 5개 식품을 무료로 선택할 수 있다. 기부받은 음식을 아동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 같은 복지단체에 보내주는 푸드뱅크와 달리 푸드마켓은 이용자 개인에게 혜택을 준다. 또 이용자가 캔류, 라면 등의 공산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비로 신설하는 45개소의 푸드마켓을 2012년부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식품 기부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풀뿌리 식품기부문화 확산과 기부자 발굴을 위해 대형마트나 아파트 단지에 식품 기탁함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용 횟수 늘리고 생필품까지 지원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과 손오자 주무관은 "식품 기부가 활성화돼 기부식품이 증가하면 이용 횟수를 늘리고 비누, 치약, 휴지 등 기초생필품까지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사한 '기부식품 제공사업 일반현황'에 따르면 식품 기부는 지난 1998년 28억원에서 지난해 말 4백79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기부식품을 받은 사람도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3만5천명에 달했다. G

글 · 송지현 객원기자

문의 · 대전 서구 푸드마켓 042-488-1370
대전 동구 푸드마켓 042-633-1377

지난해 취업자, 유가환급금 신청했나요

2008년 신규 근로자 및 신규 사업자는 지난해 시행된 유가환급금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국세청은 이들도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유가환급금 제도를 추가 시행한다.

동아DB



국세청 홍보대사인 탤런트 송일국, 김선아 씨가 유가환급금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취업 재수 끝에 지난해 3월 취직한 전혜림(25) 씨는 자신보다 1년 먼저 취직한 친구들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을 부럽게 지켜봐야만 했다.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유가환급금은 2007년 근로(또는 사업)를 기준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2008년 신규 근로자인 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것. 경기불황으로 1년 늦게 취직한 것도 서러운데 정부에서 주는 혜택마저 받지 못했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전 씨처럼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2008년 신규 근로자 및 신규 사업자 1백50만명에 대해서도 유가환급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단,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4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그리고 신청 기한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액, 근무 월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유가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등록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 월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까지이며, 환급금은 신청한 계좌로 6월 말(6월 24일 이후)에 지급된다. 환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 신청 편의를 위해 유가환급금 홈페이지(www.refund.hometax.go.kr)에 소득금액 조회 코너를 개설해 종합소득금액 및 유가환급 기준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국 1백7개 세무서 및 94개 현지 접수창구에 유가환급금 신청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유가환급금은 어떤 경우에도 자동응답전화나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 전화 사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비극적 사랑' 아리아를 만나다

국립오페라단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지난해에 처음으로 공연한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 '제1회 대한민국 오페라상' 작품상을 받은 국립오페라단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가 다시 아람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 오페라는 유쾌한 희극 '사랑의 묘약' '돈 파스쿠알레'로 널리 알려진 작곡가 도니제티의 수작으로 아름다운 선율과 서정적인 창법이 특징이며, 원수 가문 사이에 싹튼 청춘남녀의 사랑과 그들의 비극적 운명을 다룬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상심한 루치아가 위험에 처했을 때 원수 집안의 청년인 에드가르도가 운명처럼 나타나 그녀를 구한다. 둘은 비밀리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만 에드가르도가 프랑스로 떠나면서 비극이 시작된다.

신진 연출가 안호원은 지난해 버전과는 또 다른 해석을 선보인다. 지휘는 국립오페라단의 김주현 음악감독이 맡는다. 루치아 역은 김수정과 이상은, 에드가르도는 이재욱과 이승묵, 엔리코는 노대산과 김기보가 각각 연기한다.

고양문화재단 공연기획팀 황현경 씨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정상급 출연진이 이 작품을 위해 의기투합했다"며 "슬프고도 아름다운 영혼의 결혼식은 관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시 5월 22일(금) 오후 8시, 23일(토) 오후 7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관람료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문의 1577-7766 www.artgy.or.kr

정통 연극 '템페스트'

일시 5월 20일(수)~6월 6일(토) 화·수·금요일 오후 7시반,
토요일 오후 3시, 7시 반, 목·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관람료 R석 3만5천원, S석 2만8천원, A석 2만1천원, B석 2만원
(단, 목요일 오후 3시 공연은 전석 2만5천원)
문의 02-580-1300 www.sac.or.kr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걸작인 희극 '템페스트'를 바탕으로 한 작품. 소설 구성 중 액자식 구성과 흡사한 극중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를 창조한다. 작품의 배경을 현재로 옮긴 이 연극은 주인공 프로스페로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을 마치 작품 속 이야기를 보여주듯 전개한다. 연출가 손진책의 독특한 작품 해석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앙상블은 셰익스피어 연극의 또 다른 묘미를 느끼게 한다.

미술품 종합전시 '신소장품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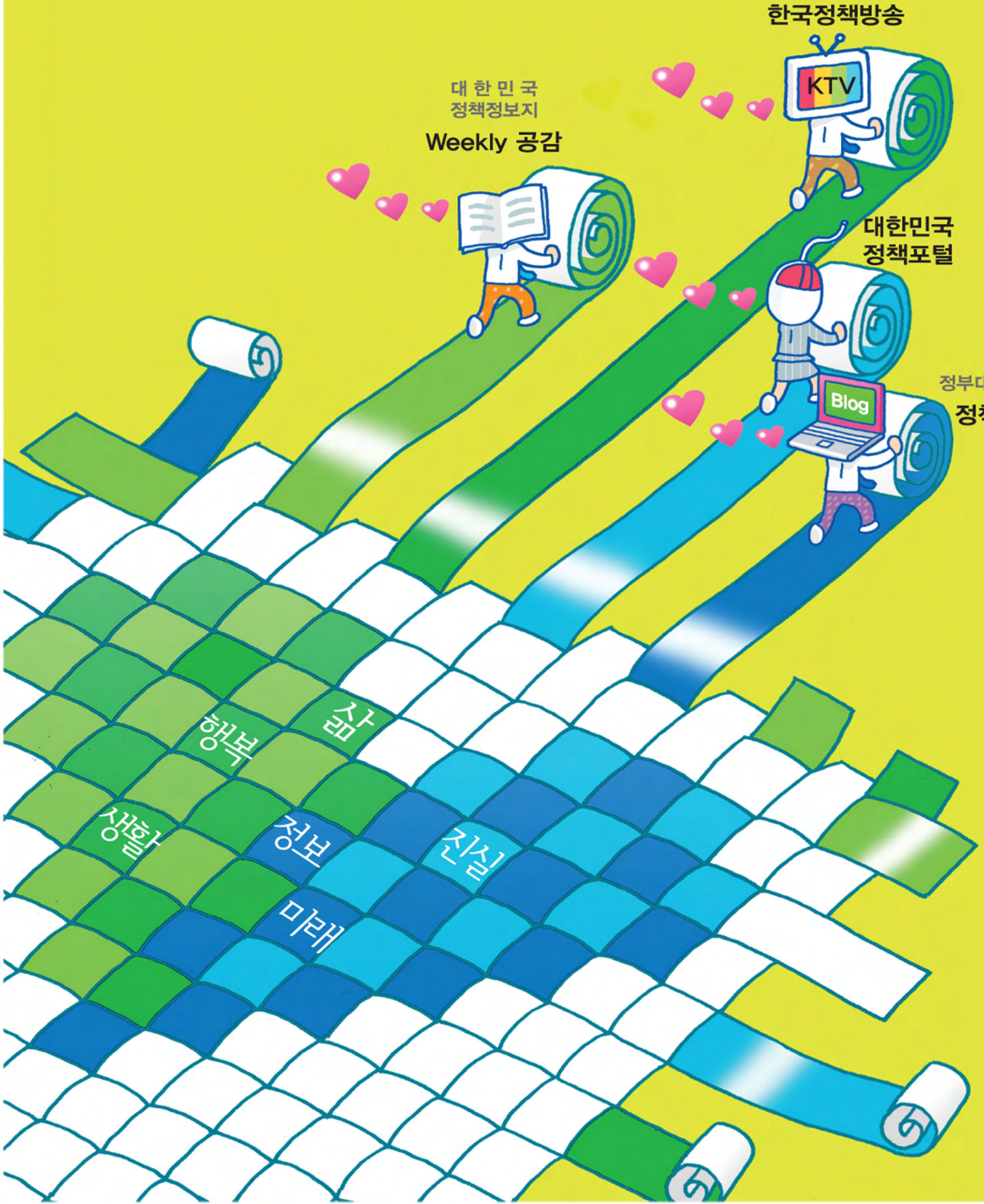
일시 ~6월 7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주중), 오후 9시(주말)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제6전시실 야외조각장
관람료 무료
문의 02-2188-6114 www.moca.go.kr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수집한 작품을 모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전시다. 한국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드로잉, 뉴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2백12점을 선보인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의 이중섭 컬렉션을 한층 더 충실하게 만든 이중섭 화가의 근대기 작품인 은지화 두 점도 공개된다. 이번 전시의 제1부는 6월 7일까지 열리며, 제2부는 6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된다. G

글 · 김지영 기자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보는 방법



Korea.kr
www.korea.kr

KTV
www.ktv.go.kr

Weekly 공감
gonggam.korea.kr



지금부터
경인 아라뱃길
Gyeong-in Waterway
시대입니다
세계로 통하는 새로운 물길!
경인 아라뱃길은 맑은 물이 흐르는 물길만이 아닙니다.
우리경제를 새롭게 살리는 물길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새 이름으로 결정된 '경인 아라뱃길' 로 불러주십시오.
'아라' 는 아리랑의 후렴구에서 따온 말로, 경인 아라뱃길은
21세기 녹색성장의 꿈을 품고 서해와 아리수(한강의 옛이름)를 잇는
글로벌 명품 뱃길을 의미합니다.
국토해양부
K water